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폐지 위기 오바마케어 베이커 주지사 "계속 유지"



베이커 주지사가 트럼프 당선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강성 프라이스 보건장관 오바마케어 폐지 가시화
베이커 주지사, 10년된 제도 성공적 평가, 우리는 유지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오바마케어가 곧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에 수술이 가해지더라도 오바마케어의 산파역할을 했던 매사추세츠주는 어떤 형식이든 오바마케어제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를 1년 남겨둔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12월 9일 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ACA(오바마케어) 전에도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희망하고 기대하는 바로는 어떤 조정이 ACA에 가해진다 하더라도 매사추세츠주는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가 트럼프 당선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1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오바마케어 폐지론 전도사였던 탐 프라이스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다. 티파티 출신이며 건강보험계에 전문지식이 있는 탐 프라이스 의원은 지난 수년간 오바마케어 철폐운동을 벌여왔던 인물. 시니어들을 위한 노년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의 민영화를 주장기도 했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메디케어앤메디케이드 센터의 소장으로 부통령 당선자 마이크 펜스의 주정부 시절 건강보험 컨설턴트였던 바이스 시마 버마를 임명했다. 시마 버마는 메디케이드내 건강세이빙어카운트를 만들고 일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반드시 큰 >>2면으로 계속

더 뜨거워진 믹스 공연 한류 알리미 역할 톡톡

>> 관련 기사 7면으로 계속



믹스의 2016년 하반기 정기공연은 보스톤 총영사관의 지원과 함께 유튜브, 아프리카TV, 빌리빌리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즐거운 연말연시를 Tbo와 함께!
상담 및 가입문의 무료전화
617-955-9112

KBS, MBC, SBS, SBS Plus, tvN, XFM, O'live, OCN

The Best OnDemand, tbo



Dr. 닥터스통중병원

"동공"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중병원에서

617.731.1001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JEI 재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www.je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2.9777
EMAIL: Burlington@jelearning.com

올해말부터 운전면허 컴퓨터시험 한국말로

12월 말부터 시작, 29개 국어 버전 컴퓨터 시험 제공 2018년부터는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할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차량등록국(RMV)이 빠르면 올해 12월 말부터 운전면허 컴퓨터시험을 한국말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에린 드브니 차량등록국장은 7일 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이커 정부는 차량등록국이 고객지향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발맞춰 지금껏 종이시험으로만 가능했던 외국어 시험을 컴퓨터로 응시할 수 있도록 바뀌고 고객의 편리성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신청서류를 갖춰 신청한 후 시험감독관이 지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며 응시 후에도 이를 손으로 채점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올해말부터는 영어 운전면



에린 드브니 차량등록국장은 매사추세츠 차량등록국(RMV)이 빠르면 올해 12월 말부터 운전면허 컴퓨터시험을 한국말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허 컴퓨터 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 번호표를 뽑아 대기했다가 순번이 되면 컴퓨터에서 한국말 버전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 매사추세츠 차량등록국은 12월 말부터 한국어를 비롯해 29개국어의 컴퓨터 버전 시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드브니 국장은 “이미 외국어 시험 번역이 완료됐지만 현재 번역의 정확성을 점검중이며 늦어도 크리스마스께부터는 외국어 버전 컴퓨터 시험을 공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드브니 국장은 매사추세츠주의 리얼아이디 준수와 관련해 주의회가 법을 통과시켰으며 아마도 리얼 아

이디를 발급하는 2018년 정도부터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 그리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제시해야 한다” 고 밝혔다.

드브니 국장은 “리얼아이디와 기존의 아이디 모두를 발급하는 이중 운전면허 시스템을 유지하겠지만 리얼아이디 운전면허가 아닌 경우 2020년 10월부터는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할 것” 이라고 밝혔다.

드브니 국장은 “리얼아이디 전환은 모든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다시 대대적인 홍보를 벌일 것” 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오바마케어 지킨다

▶▶1면에 이어서

료를 증명토록 하는 등 그 또한 오바마케어 반대론자다. 트럼프는 이 쌍두마차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갈아엎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언론들은 오바마케어의 폐지 또는 수술은 미국내 건강보험계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충격은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뉴잉글랜드주에도 파급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의 건강보험 관련 업계는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백인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은 이민사회의 우려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사는 “구체적인 조정안이 마련되어서 매사추세츠까지 도달하기까지는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 매사추세츠에서는 양당이 공조하여 거의 10년을 이끌어 왔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의 지적을 고려했을 때 실제적으로 폐지하고 대체안이 마련되어서 실행에 들어

가려면 3-4년이며 바로 차기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면 겨우 1-2년 정도도 안되어 다시 오바마케어로 돌아올 수도 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내 2천만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수는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달러대달러로 매치해주는 연방보조금이다. 매사추세츠는 지난달 현 오바마행정부와 292억달러의 연방보조금을 향후 5년간 지원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이커 행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정부의 재정적자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분명 베이커 행정부는 그만큼의 혜택 축소를 선택할 것이다. 베이커는 최근 주 재정지출 삭감안을 두고 “세수가 없는데 없는 돈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고 단호하게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주정부 내년 고교생 첨단기업 유료 인턴십 기회 확대

바이오테크 회사인 버텍스, 내년도부터 GE 도 합류 <커넥팅 액티비티스> 통해 학생들과 기업체 연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베이커 행정부는 내년도 고교생들의 과학기술분야(STEM) 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기로 했다고 12월 7일 밝혔다.

유료 인턴십 프로그램인 스템 인턴십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나서 산업체와 인턴십 학생들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기중 또는 여름방학 등을 이용해 현장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 직업의 터전을 마련할 수도 있다.

카린 폴리토 부주지사는 7일 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스톤 주변지역에서는 첨단 과학 기술분야의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



고 있으며 주요 기업주들의 요청으로 고교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확대를 추진기로 한 배경을 밝혔다.

폴리토 부주지사는 <스쿨투커리아커넥팅액티비티스(School to Career Connecting Activities)>를 통해 이 같은 인턴십 기회를 제공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표는 2017년 봄, 여름까지 고교생 스템(STEM)인턴십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 교육부는 이미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지난 2014년 이래 주내 240여개 스템(STEM)기업들이 해당 약 1천여명의 고교생 인턴을 고용해왔다. 스템기업들은 주내 병원, 바이오테크, IT업계, 금융, 첨단 제조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교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모델 기업은 생명과학 기업인 버텍스(Vertex)였다. 버텍스는 보스톤공립학교등과 파트너십으로 고교생 인턴십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만 해도 30여개 학교로부터 인턴들을 선발해 유지했다.

최근 보스톤으로 본사를 이전한 GE도 내년 봄부터는 고교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기로 했다. 앤 클리 GE 부사장은 “재능있는 인재 키우는 것은 회사전략의 핵심”이라며 스템



폴리토 부주지사는 <스쿨투커리아커넥팅액티비티스(School to Career Connecting Activities)>를 통해 이 같은 인턴십 기회를 제공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턴십 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폴리토 부주지사는 “스템 인턴십은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장래 직업에 대한 준비를 고교 시절에 할 수 있으며 기업들의 경우 장래 직원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스쿨투커리아커넥팅액티비티스>는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인턴십 제공을 지원한다. 주내 16개의 커넥팅 액티비티스 스템들이 각회사 및 고등학교와 협력해 인턴십 과정에 대한 안내와 보조를 담당한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신청방법에 대해 로라 리가스 교육부 대변인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가이던스 카운슬러를 찾아 신청이 가능한 여러분야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폴리토 부주지사는 조셉 케네디 연방하원의원, 제프리 레이든 버텍스 대표와 함께 매사추세츠 스템 자문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스템자문위원회는 주 과학기술 분야 교육의 향상과 학생들의 양질의 과학 교육제공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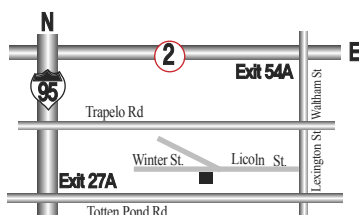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Class	Time	
PSAT / 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재외동포재단 예산 616억 확정 전년대비 64억원, 11.7% ↑

'고려인 정주 80주년 기념사업' 2억원 ↑ ... '한상활용 국내청년 해외진출 지원' 등 신설
재외동포재단 제주 이전, '재외동포센터' 건립 관련예산 증액 반영 안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회가 12월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처리함에 따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예산도 최종 확정됐다.

2017년도 재외동포재단 최종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612억 2,2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 증액(0.6% 증가)된 616억 200만원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전년도 예산 551억 6,200만원에서 11.7%(64억 4,400만원) 증가함에 따라 동포재단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0억원을 넘어섰다.

동포재단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글학교 육성' 중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이 32억 2,800만원 증액된 157억 7,200만원(전년도 125억 4,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외에도 '계기성 기념사업'이 2억원 증액된 5억(전년도 3억)으로, 이는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80주년 기념사업'이 2억원 증

액된 데에 따른 것이다. 또, '한인 회관 등 건립지원'이 1억 800만원 증액돼 8억 6,000만원(전년도 7억 5,20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3억 4,000만원) △한상활용 국내청년 해외진출 지원(11억 5,000만원)이 추진된다. 2015년 결산기준으로 14개의 세부사업은 총 1억 8,800만원 감액됐다.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제주 이전이 지연되자 국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온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의 주장으로 상임위원회(국회 외통위)에서 반영됐던 재외동포재단 제주 이전비 10억원 증액은 내년도 최종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 제주 이전 사업은 총 85억 2,500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단이 예산 전액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에 지방이전비로 14억 600만



원만 편성하바 있다.

또, 재외동포들이 꾸준히 건의해 왔던 '재외동포센터' 건립 예산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번 국회 외통위에서는 '재외동포센터' 건립과 관련, 재외동포들의 교육지원 강화와 국내체류 동포 지원 등을 위해 건립 설계비 등 14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국악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국악과 과장 김승근 교수가 이끄는 국악그룹이 12월 20일 (화) 저녁 6시에 뉴잉글랜드 콘서트홀에서 연주와 워크숍의 시간을 갖는다.

이 공연단은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로스앤젤레스, 텍사스 오스틴과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순회 공연을 가지는 중 보스톤도 방문한다. 연주자는 김은영 (해금), 양종윤 (장구), 윤지현 (가야금)이고 현재 서울대학교 학사나 석사 과정에 있다. 연주 곡목은 하

현도드리, 해금 산조, 설장구, 경기 풍류, 그리고 시나위등이다.

김승근 교수는 국립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 작곡과에서 디플롬 학위를 취득했으며, 동아음악콩쿨, 대한민국 작곡상, 흥진기 창조인상을 수상했다.

무료입장이지만 한정된 공연장이므로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 뉴잉글랜드콘서트홀내 구체적인 공연장소는 아직 협의중이며 자세한 문의는 857-207-7041 (김도연)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새생활센터 무료 독감예방주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생활센터는 12월 10일 토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2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스톤햄에 위치한 보스톤새생활센터에서 무료 독감예방접종 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12월 10일에는 다른 진료는 없이 오직 독감예방접종 서비스만 실시하며 17일에는 무료진료서비스도 겸한다. 독감예방접종을 원하는 한인들은 누구나 도착한 순서대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보스톤새생활센터는 몸이 불편해 진료실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특별히 수송 대책을 마련하여 환자를 수송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특별 수송이 필요한 환자들은 새생활센터 송연호 대표 (317-374-4786)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연말 선물은 정관장

행사기간: 12.5 ~ 12.24 까지

잔치 1

홍삼정 240g 구입시

FREE GIFT 홍삼정 50g 무료증정

\$46 상당

잔치 2

홍삼톤제품 / 홍삼추출액 구입시

FREE GIFT 홍삼정 30g 무료증정

잔치 1

홍삼정 240g 2개 구입시

FREE GIFT 홍삼정 120g 무료증정

\$100 상당

잔치 2

홍삼정 240g 2개 구입시

FREE GIFT 홍삼정 120g 무료증정

\$100 상당

BIG SALE 30% OFF

동인비 전제품

행사기간: 12월 25일 까지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전화 주문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100 이상 구입시 무료배송

한인교회협의회 <조국을 위한 기도> 발표

완곡하지만 사실상의 시국선언
행악에 대한 마땅한 책임 기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 명술 기자 =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교회협의회가 12월 8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루 앞두고 <조국을 위한 기도>문을 발표했다. 이 기도문은 지금까지 한번도 협의회 입장에서 한국의 정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던 한인교회협의회의 이례적인 것으로 사실상의 시국선언이다. 그만큼 위중한 한국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뉴잉글랜드 지역내 감리교 등 10개 교파의 이민한인교회의 연합체인 한인교회협의회는 <조국을 위한 기도문>을 통해 “힘과 권력을 잠시 부여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높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그 주변 사람들은 악한 목자처럼 국민들을 노략했습니다” 고 지적했다.

한인교회협의회는 이어 “자신들의 불의를 회개하지도 부끄

러워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빛을 비추시사 숨은 것이 드러나며, 감추인 것이 알려지게 하옵소서. 잘못된 권력자들이 두려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권력이 그들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며, 그들의 행악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적시했다.

한인교회협의회는 “큰 상처를 받아 분노와 절망, 불안 가운데 있을 조국의 국민들과 전 세계의 한인들을 주어 위로하여 주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라며 세계의 한인들의 고통을 위로했다.

이 기도문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 끝맺었다.

editor@bostonkorea.com



각 지역 한국학교에서 봉사하는 보조교사들에게 낙스주니어리더십어워드를 수여했다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Junior Leadership Award 시상식

NE 지역 6개 한국학교 12명의 학생이 수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협의회는 지난 12월 3일 보스톤 한국학교에서 각 지역 한국학교에서 봉사하는 보조교사들에게 낙스주니어리더십 어워드 (NAKS Junior Leadership Award)를 수여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 시상식은 차세대교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협의회와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상자는 밀알한국학교 김재연, 애머스

트한국학교 최유진, 우스터한국학교 이제희, 퀴지한국학교 김동영, 김유경, 최예빈, 한미음한국학교 조희진, 홍리나, 북부보스톤한국학교의 부현경, 정도경, 정유진, 조현재 학생이 각각 수상하였다.

NAKS Junior Leadership Award는 차세대 한국어교사로서 학생들의 역량을 치하하고,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장학금과 함께 수여되었다. 협의회는 향후 우수 차세대교사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시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맑고 고운 동심의 축제, 2016 동요합창제 성황

재미한국학교 NE 지역협의회 주최 제 15회 동요합창제
9개 한국학교 11팀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는 지난 12월 3일 매사추세츠 브루클라인에 소재한 보스톤한국학교에서 제 15회 동요합창제를 개최하였다. 동요합창제는 지난 2014년부터 시상없이 발표회 형식으로 전환해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자리해 왔다.

한순용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장은 “대회가 아닌 잔치의 형식으로 전환한 뜻에 맞춰 아이들이 동요를 통해 한국을 배우고 더불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며 동요축제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 날 행사에는 뉴잉글랜드지역의 9개 한국학교 200여명의 학생들, 교사, 학부모 및 내외 귀빈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하여 큰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었다.

동요합창제 첫번째 발표 학교인 보스톤천주교한국학교(교장 서용학)는 예쁜 영상을 함께 준비한 노래와 유아반 아이들이 캐롤송 메들리를 귀엽게 불렀다. 그린랜드한국학교(교장 조은경)는 학생들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와 전통악기 연주와 함께 흥겨운 민요를 들려주었다. 내슈아 한마음한국학교(교장 김연정) 학생들은 주황색 티셔츠를 다같이 입고 귀여운 율동을 선보였다.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밀알한국학교(교장 김현주)는 소수인 일곱 명의 학생들이 멋진 율동과 노래로 “사랑”을 표현했다. 예쁜 코사지를 만들어 가슴에 달고 나온 우스터한국학교(교장 서효순)는 외국인학생들이 솔로를 불러 눈길을 끌었다. 보스톤한국학교(교장 강상철)의 아이들은 활기찬 율동으로 씩씩한 모습을 자랑하였다. 아이들의 손도장을 찍은 티셔츠를 맞춰 입은 보스톤장로교회한국학교(교장 김재울)는 “예쁜 말”을 사용하지는 뜻의 노래를

불러 주었다. 뉴잉글랜드한국학교(교장 남일)는 깨끗하고 정렬된 모습으로 노래를 들려주었다. 가장 적은 인원이 참가한 퀴지한국학교(교장 최연식)도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처럼 각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연습한 노래를 들려주면서 400여명의 관중들은 뜨거운 갈채로 응원했다. 밀알한국학교 김현주 교장은 “각 학교마다 특색있게 준비한 합창공연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같이 훌륭했다.” 고 평가했다.

노래 공연이 끝난 뒤에는 산타(보스톤천주교한국학교 교감)가 등장하여 전체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고 각 학교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등 참가자 모두가 협의회에서 마련한 피자와 음료를 나누며 교제하는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보스톤한인회 김경원회장, 뉴햄프셔한인회 조은경회장, 예술인협회 김병국회장, 한미노인회 유영심회장 및 김용진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노인회 회원분들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광석 교육영사도 참여해 김경원 한인회장과 함께 아이들을 격려하는 축사를 전달했다.

NE 지역협의회 동요제는 이 지역의 한국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 관련단체의 귀빈까지 한 자리에서 만나 각 학교의 모습을 청중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한국학교의 커다란 잔치로 뜻깊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다음 한국학교협의회 행사로는 내년 1월 말경, <찾아가는 역사, 문화연수 및 캠프>가 계획되어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아이들의 손도장을 찍은 티셔츠를 맞춰 입은 보스톤장로교회한국학교(교장 김재울)의 합창 모습



그린랜드한국학교(교장 조은경)는 학생들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와 전통악기 연주와 함께 흥겨운 민요를 들려주었다



내슈아 한마음한국학교(교장 김연정) 학생들은 주황색 티셔츠를 다같이 입고 귀여운 율동을 선보였다



밀알한국학교(교장 김현주)는 소수인 일곱 명의 학생들이 멋진 율동과 노래로 “사랑”을 표현했다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더 뜨거워진 믹스 공연, 한류 알리미 역할 특출

인터넷 방송 통해 생중계 방영, 총영사관에서도 지원
BU 학생 뿐 아니라 코네티컷에서도 방문, 한류 인기 체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보스톤 지역에서 한류 문화 소개에 앞장서 온 보스톤대학(이하 BU) 커버댄스 동아리 믹스(miXx)가 2016년 하반기 정기공연에서도 그 인기를 확인했다. 이번 공연에는 보스톤 총영사관의 지원에 힘입어 공연 실황이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 되어 그 열기를 더했다.

믹스는 3일 BU의 조지 셔먼 유니온(GSU) 지하 1층 강당에서 정기 공연을 치렀다. 200여명의 BU학생 및 한류팬 앞에서 70여명의 공연자들은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로 시작된 공연은 AOA의 Good Luck, 여자친구의 나빌레라, I.O.의 픽 미, 등 최신 한류 인기곡 21개곡으로 2시간 동안 채워졌다.

특히 2부 순서에서는 올해 한류팬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 올해 신인가수상의 가장 강력한 후보인 트와이스의 'TT', 한류 최고의 인기 그룹인 소녀시대의 '유 싱크(You Think)'의 공연이 진행되자 장내 분위기는 최고조에 다다랐다. 전반기 정기공연 때와 같은 화려한 복근쇼나 과격적인 섹시무대는 없었지만 공연자들이 관객적으로 다가와 관객과 교감을 하거나, 다리 찢기 등 고난이도의 무대를 선보이는 등 더 발전된 무대매너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한류의 인기는 올해에도 식을 줄 몰랐다. 방탄소년단 2집 앨범 'Wings'가 빌보드 200(앨범차트)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최고 순위인 26위에 오르는 활약이 있었다. CL이 빌보드 Hot 100(싱글차트)에서 한국 여성 솔로가수로는 최초로 순위권(94위) 안에 들었고, 미국 외에서 판매되는 음반 집계인



믹스는 200여 명의 관객 앞에서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 트와이스의 'TT', I.O.의 Pick Me 등 인기곡들의 커버댄스를 소화했다

빌보드 월드 디지털 차트와 앨범차트에서 블랙핑크, BAP, 엑소 등이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활약에는 믹스를 비롯한 전세계 한류팬들의 성원이 컸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이번 공연에서는 BU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젊은 보스톤인이나 심지어 코네티컷에서 공연을 보러 온 관객도 있었다. 아버지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 온 고교생 마리아 레이시앙(코네티컷 거주)은 "공연이 너무 재미있다. 즐겁게 공연을 하고 있는 공연자들의 모습을 보니 나도 저런 멋진 공연을 해 보고싶다"며 소감을 말했다. 마리아 양의 아버지인 토마스 씨는 "딸이 직접 기타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며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데, 특히 한류를 정말 좋아한다.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고, 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아버지로써 행복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믹스의 회장 켄 씨는 "올해는 특히 기존의 유튜브에서 우리들이 만든 한

류 뮤직비디오 커버 동영상상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한류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아프리카TV와 빌리빌리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도 시작해 더 바쁜 한해였다"고 말했다. 켄 씨는 "공연을 할수록 팬들도 많아지고, 이번 공연에는 특히 보스톤 총영사관에서의 지원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멋진 활동으로 한류팬들과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보스톤 총영사관의 김범준(교육행정담당)씨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의 학생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하고, 프로 못지 않은 실력의 춤 솜씨를 뽐내는 것에 놀랐다"고 관람 소감을 전했다. 김 씨는 "앞으로도 총영사관은 믹스와 같이 실력 있는 단체들을 많이 발굴해 지원해 나가고 싶다"며 "한국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관련 단체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itshunne@bostonkorea.com

소리안과 함께 하는 커피 한 잔의 여유

100여명 관객 앞에서 사랑을 주제로 공연
버클리 한인 밴드와 협연, 자작곡도 선보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매년 연말이 되면 겨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캐주얼하고 흥겨운 가요로 연말을 장식해 왔던 보스톤 대학 한인 음악 동아리 '소리안'이 올해는 소리안 카페(Sorian Cafe)라는 테마와 사랑을 주제로 깊어가는 겨울밤을 수놓았다.

소리안은 3일 저녁 7시 보스톤대학(이하 BU)의 조지 셔먼 유니온(GSU) 2층 강당에서 100여명의 관객이 입장한 가운데 1시간 30분간 정기공연을 가졌다.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을 노래를 통해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간 이번 공연은 총 4막으로 구성, 11곡을 부르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공연은 제 1막 설렘에서 아이유와 장이정 원곡의 '금요일에 만나요'로 그 시작을 알렸다. 남성과 여성보컬의 화음의 조화 속에 설레는 감정을 음악의 선율로 아름답게 표현해 낸 소리안은 이후 사랑 중, 헤어짐, 그리움으로 이어지는 각막을 GD, 탑의 'Baby Good-night', 라디의 단발머리(원곡 조용필), GD그새기, Anybody 힙합버전(원곡 원더걸스) 등 11곡을 소화했다.

올해 공연은 예년처럼 버클리 음대의 한인밴드들과의 협연으로 진행되어 관객들은 라이브 무대의 묘미를 한껏 만끽할 수 있었다. 무대에 오른 곡들은 각 막의 분위기에 맞게 편곡되어 기존의 곡과는 또 다른 묘미를 선사했다. 특히 2막에



소리안은 3일 소리안카페라는 테마로 100여명의 관객을 앞에서 정기공연을 가졌다

서는 직접 작사 작곡한 곡 '그냥'도 선보여 자신들의 음악적 재능을 뽐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소리안 카페라는 테마로 진행 된 만큼 공연 이전에 공지된 미션을 수행한 관객들에게는 멤버들이 커피를 사주는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최근 미국 젊은층에서 유행하는 마네킹 챌린지를 비롯해 경품추첨 등 기존 소리안의 정기공연보다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준비한 노력들이 더 많이 엿보였다.

소리안의 회장 정은지 씨(BUCOM)는 "이번 콘서트는 그 어떤 콘서트보다 양보다 질에 힘을 썼고 그 결과물이 잘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공연 소감을 밝혔다. 정 씨는 "앞으로도 양보다 질에 충실한 소리안이 되기 위해 관객과 더욱 소통하고 한국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50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ah.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보스톤에서 크리스마스트리 구하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전 나무를 감싸는 반짝이는 불빛과 장식만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트리의 기원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이야기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숲속을 산책하던 루터는 어두운 숲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전나무를 발견하게 된다. 나무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이 달빛을 받아 빛이 나고 있는 것을 보고 “한 개인은 어둠 속의 초라한 나무와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일 수 있다” 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 후 집으로 전나무를 가져와 눈 모양의 솜과 빛을 발하는 장식과 촛불로 장식하면서 크리스마스트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트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모양도 방식도 다양하게 바뀌었다. 요즘에는 간편하게 인조트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은은한 나무 냄새와 자연스러움이 장점인 생나무를 구해 차지봉에 묶어 집으로 향하는 풍경은 전형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의 모습 중의 하나이다.

보스톤 인근의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나무를 구할 수 있는지 보스톤 매거진이 소개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가능하다면 트리 농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신선한 트리를 구하는 방법이지만, 멀리 농장까지 가지 않고 인근에서 싱싱한 나무를 구할 수도 있다.

구입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소매점의 경우 나무에 정확한 사이즈가 표시되어 있어서 집의 공간에 알맞은 나무를 사기 쉽지만, 나무농장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는 나무의 높이를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출발 전에 농장에 나무가 충분히 있는지, 나무를 자르는 도구를 제공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나무를 고른 후에는 트리 거치대에 맞도록 트리 밑부분의 1피트 정도 잔가지 제거하고 밑동의 1인치 가량을 잘라줘야

한다. 자른 후 6-8시간 이내에 거치대에 설치한 다음 물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송진이 나와 굳어버려서 오랫동안 싱싱함을 유지할 수 없다.

나무농장에서 구하기

그린우드 트리 농장 (Greenwood Tree Farm)
500개 이상의 나무가 있는 농장으로 대부분이 프레이지 피이고 일부 발삼나무를 취급한다. 직접 나무를 골라서 자르는 것은 65불, 미리 잘린 나무는 45-75불에 살 수 있다.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 주차는 무료이다.

96 Dudley Road, Billerica, 978-667-5380, greenwoodtreefarm.wordpress.com.

스몰락 농장 (Smolak Farms)

애플피킹 농장으로 유명한 이곳에서는 직접 골라 자르는 나무 한그루당 69불, 미리 잘린 나무는 48-149불에 살 수 있다. 비교적 비싼 가격이지만 좋은 품질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일찍 찾아가지 않으면 매진이 되곤 한다.

315 South Bradford St., North Andover, 978-682-6332, smolakfarms.com.

크레인 넥 크리스마스트리 농장 (Crane Neck Christmas Tree Farm)

프레이지, 발삼, 더글라스, 블루 스피러스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60-65불 정도에 살 수 있다. 그 외에도 할인된 가격의 나무가 10-55불에 제공된다. 현금과 체크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강아지의 출입을 허용하는 몇 안 되는 농장 중의 하나이다.

114 Crane Neck St., West Newbury, 978-363-1272, cranenecktree.com.

밴더발크 트리 농장 (Vandervalk Tree Farm)

4에서 9피트 높이의 발삼나무를 주로 취급하며 한그루당 25-100불이다. 현금과 체크카드 결

제만 가능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가져가야 한다. 나무 포장에 해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이 다 한잔을 제공한다.

25 Lovell St., Mendon, 508-478-8733, vandervalkfarm.com.

터키 힐 농장 (Turkey Hill Farm)

다양한 나무 종류를 취급하며 대부분 70불이지만 싸게는 10불짜리 나무도 있다. 현금과 체크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380 Middle Road, Haverhill, 978-372-9474, turkeyhillfarm.com.

도시에서 구매하기

앨런데일 농장 (Allendale Farm)

도시에 있는 작은 농장으로 평소 식물과 꽃을 취급하는 곳이지만,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트리를 살 수 있는 곳으로 변신한다.

259 Allendale Road, Boston, 617-524-1531, allendalefarm.com.

보스톤 크리스마스 트리스 (Boston Christmas Trees)

알스톤에 위치한 곳으로 3-12피트 높이의 나무를 15-125불에 판매한다. 그 외에도 트리 스탠드, 화환, 꽃장식 등을 취급하고 있다.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22 Harvard Ave., Allston, 617-510-0866, bostonchristmastrees.com.

리키의 꽃시장 (Ricky's Flower Market)

서머빌의 유니온 스퀘어에 위치한 리키의 꽃시장은 2012년부터 자전거 트리 배달을 시작했다. 요청에 따라 설치도 해준다. 다양한 종류의 전나무를 취급하며 그중에는 스트로브잣나무 (White Pine)와 같이 흔치 않은 종류 또한 있다. 테이블 위에 놓을 수 있는 크기부터 시작해서 12피트 높이의 나무를 살 수 있다.

238 Washington St., Union Square, Somerville, 617-628-7569, rickysflowermarket.com.

홈디포 (Home Depot)

발삼, 프레지어, 더글라스, 콜로라도 블루 스피러스 등 다양한 종류의 전나무를 취급한다. 홈페이지에 나무 종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므로 미리 취향에 맞는 나무를 조사해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트리 외에도 포인세티아와 리스 등을 판매한다. 차지봉에 끈으로 묶어주는 것까지 서비스로 제공한다. 홈디포는 첼시점, 사우스베이, 퀸시, 서머빌, 스프링필드를 포함하여 보스톤 인근에 다수 위치하고 있다.

homedepot.com.

sun@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김성애 (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 (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어디에 가면 산타를 만날 수 있을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산타가 실제로 있다고 믿었던 어린 시절, 빨간 옷에 흰 수염을 한 산타를 만나서 가슴 설레었던 기억이 반짝 빛나듯이 남아있다. 어른들이야 산타가 단지 분장을 한 연기자라는걸 알고 있지만, 아직도 산타를 믿는 어린이가 있다면 산타를 실제로 만나는 경험은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

보스톤에서는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곳곳에서 산타와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멀리 농장이나 동물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근의 쇼핑센터에서도 산타를 만나볼 수 있다. 대부분이 사진 패키지와 관련된 이벤트로 비용을 지불해야하지만, 일부 무료로 진행 중인 곳도 있다.

산타 인 더 씨포트
씨포트의 디스트릭트 홀에서는 12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타 인 더 씨포트(Santa in the Seaport)'를 진행한다.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을 환영하는 이 무료 행사에서는 쿠키 장식과 핫초콜렛과 더불어 산타와의 포토타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이들이 노는 동안 부모들은 아기자기한 소품을 쇼핑하도록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District Hall, 75 Pier Four Boulevard, Boston
스톤 동물원의 주라이트(ZooLights)

스톤햄에 위치한 이 동물원은 현재 수천 개의 전구들로 장식되어 연말 분위기를 한껏 내고 있다. 독수리와 캐나다 스라소니와 같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산타의 썰매를 끄는 것으로 유명한 순록을 만나볼 수 있다. 산타 성에 있는 산타와 사진 찍는 패키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14일부터 시작한다. 그외 입장료는 일 인당 9불, 동물원 멤버의 경우 8불이며, 2살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이다. 1월 1일까지 진행된다.

Stone Zoo, 149 Pond St., Stoneham
케임브리지사이드 갤러리아
케임브리지사이드 갤러리아 쇼핑몰 1층에 마련된 무료 행사로 방문하는 가족마다 4x6인치 크기의 사진 두 장과 디지털로 다운로드 가능한 한 장의 사진을 받을 수 있다. 12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CambridgeSide Galleria, 100 CambridgeSide Place, Cambridge
내틱 몰

내틱 몰에 위치한 니만 마커스 백화점 안뜰에서 산타와의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일찍부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긴 줄을 피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의 경우 할인 또한 가능하다(natickmall.com). 12월 24일까지 정오에서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오

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진 패키지 구성에 따라 가격은 다양하다.

1245 Worcester St., Natick
프루덴셜 센터
프루덴셜 센터의 벨비데르 아케이드에 산타가 등장한다. 12월 24일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사진 패키지는 19.99달러부터 시작한다.

Prudential Center, 800 Boylston St.
배스 프로 샵의 산타 원더랜드
매년 배스 프로 샵은 윈터 원더랜드로 변신한다. 무선조종 가능한 트럭, 아케이드 게임과 함께 산타와의 사진 이벤트도 진행된다. 12월 24일까지 매일 다른 행사가 진행된다.

Bass Pro Shops, 1 Bass Pro Dr., Foxborough

사이먼 쇼핑센터
브라인트리, 벌링턴, 말보로, 노스 애틀보로, 피바디, 서거스, 체스트넛 힐에 위치한 사이먼 쇼핑센터에서 산타를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시간 예약을 해야 하며 사진 패키지 구매를 원한다면 예치금 10불을 내야 한다. 장소에 따라 이벤트 날짜와 시간이 다르므로 홈페이지(simon.com)에 들어가서 해당 쇼핑몰의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스몰락 농장의 산타 워크숍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 12월의 주말마다 노스 앤도버에 위치한 스몰락 농장에서는 산타 워크숍이 진행된다. 무료 행사이며 예약할 필요도 없다. 12월 11일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Smolak Farms, 315 South Bradford St., North Andover
sun@bostonkorea.com



'닥터 수스'박물관 내년 스프링필드 오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미국인들의 동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닥터 수스' (Dr. Seuss)를 기념하는 박물관이 내년 6월 스프링필드에 문을 연다.

독특한 캐릭터와 음율이 특징적인 동화책을 통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테오도르 수스 게이젤 (Theodor Seuss Geisel, 1904~1991)은 매사추세츠 주 스프링필드 출신이다.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쓴 고양이 가 주인공인 '갯 인더 햇' (The Cat in The Hat)을 비롯하여 수스가 창조해낸 유명 캐릭터들을 좀 더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박물관이 세계 최초로 그가 태어나고 자란 스프링필드에 세워지는 것이다.

박물관의 전체 전시장을 관통하는 주된 테마는 닥터 수스 동화의 특징적인 운율과 단어놀이이다. 이는 어린 학생들에게 책 읽는 재미를 처방해주기 위해 스스로 닥터라고 명명했던 수스의 뜻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수스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책을 집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1957년 발표된 '모자 쓴 고양이'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 220개만을 사용하여 쓰여진 책이다.

이뿐만 아니라, 수스의 나비넥타이 컬렉션을 비롯한 그의 가족 소유의 개인 유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그 중에는 이번에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수스의 드로잉과 조각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스의 작업실이 박물관 내에 재현되어 실제 그가 사용하던 가구와 드로잉으로 꾸며진다.



닥터 수스 엔터프라이즈의 대표인 수잔 브랜트(Susan Brandt)는 "박물관 설립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설렌다. 특히 박물관 공간을 기획하는 일이 기대된다. 이 공간들은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닥터 수스 캐릭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하며 상호교류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닥터 수스 박물관은 닥터 수스 국립기념조각정원 (Dr. Seuss National Memorial Sculpture Garden) 인근에 위치한 윌리엄 핀천 기념관(William Pynchon Memorial Building)에 자리를 잡게 된다. 박물관이 오픈하는 2017년은 닥터 수스 국립기념조각정원의 15주년이기도 하다.

박물관은 향후 스프링필드에 있는 5개의 박물관과 함께 스프링필드 박물관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며, 닥터 수스 박물관은 현재 기부금을 모금 중이며 목표는 7백만 달러다. 지금까지 모금된 금액은 총 5백70만 달러다.

닥터 수스 박물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seussinspringfiel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근육경직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집중력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손상
- ④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감소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심혈관 질환 예방, 스트레스 관리
- ⑦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 노인
- ⑧ 정기 예방접종, 건강검진, 건강관리
- ⑨ 기타 재활치료, 치료, 연구, 교육, 상담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압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ugherty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베이커 주지사 예산 삭감 지시, 의회는 반발

주지사 재량으로 행정부 1억 달러 감축 민주당 지도부 주요 프로그램 타격 우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주정부의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 현재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예산 부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6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주지사로서의 재량권을 이용해 남은 회계연도 동안 약 1억 달러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올해 회계연도는 6월 30일에 종료된다.

공화당 출신의 베이커 주지사는 자신의 참모진들과 상의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민주당에서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의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의회 지도자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이커 주지사의 서한을 받자마자 의회의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원의 로버트 들리오 의장은 베이커 주지사의 예산 삭감안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베이커 행정부는 예산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기대 이하의 세금 수입과 예상치 못한 메이케이드 비용을 지적했

다. 이 때문에 지난 여름 의회에서 통과된 2억 3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 증액이 주정부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름에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증액은 베이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회안대로 실행되었다.

베이커 행정부의 크리스텐 레포레 행정 및 재정부 장관은 "오늘부터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민들을 위하여 균형 잡힌 예산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베이커 주지사가 말한 예산 삭감안은 의회의 표결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정부의 여행

부서에서 760만 달러, 주경찰에서 650만 달러, 주정부의 공원 관리부서에서 530만 달러를 감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들리오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미 의회에서 거부된 행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지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상원 세입위원회의 캐런 스피카 위원장도 "주지사의 예산 삭감안은 노숙자와 약물 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주지사가 자신의 입맛에 따라 예산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려고 한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매사추세츠 주의 모든 커뮤니티가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공화당 출신의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예산 삭감을 지시하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반발하고 있다



유매스 법대 6년만에 공식 인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최초의 주립 법대인 유매스 법대(University of Massachusetts School of Law)가 미국 변호사 협회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았다. 주립 법대가 생긴지 6년만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다트머스에 위치한 유매스 법대는 저렴한 학비로 다닐 수 있는 법대를 지향하며 2010년 주립대학교 시스템에 편입되었다. 기존에 있던 서던 뉴잉글랜드 법대(Southern New England School of Law)가 캠퍼스를 비롯해 학교의 모든 자산을 기부했고, 주정부 산하 교육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주립 법대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매스 법대는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해 6년 동안 변호사 협회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유매스 법대는 2012년에 변호사 협회로부터 임시 인가를 받고 운영되어 왔다.

유매스 법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립 법대에 대한 대안으로 학비가 저렴한 법대가 매사추세츠 주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유매스 법대 역시 여전히 학비가 비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2016-17 학년도 기준 등록금은 유매스 법대가 매사추세츠 주민일 경우 26,466달러이다. 사립 법대인 써픽 법대는 주간 학생 등록금이 45,922달러이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국밥,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두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BealBeefSoup.com



서울 or Deacon's Hil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SeoulFoxBistro.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주책, 콘도,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 Sson@ownnewengland.com
Son2323@gmail.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곧건)




케임브리지 화재로 주택 보험 가입 중요성 증가

월 15~20달러로 큰 지출 없어, 인터넷 가입으로 간편 가입된 보험 얼마까지 피해 보장 가능한지 확인 필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라틴계 및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집중 거주하는 이스트케임브리지 지역에서 규모 10의 대형화재가 발생, 10여 채의 건물을 태우고 100명이 넘는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화재 발생 시간대가 사람들이 외출한 오후 3시여서 화재의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는 적었다. 케임브리지 시에 확인 결과 현재까지 보고된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 소방서와 케임브리지 시 당국은 건설 현장에서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을 계속 조사했지만 방화의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주거지 주변 공사현장에서 가연성 높은 재료에 불이 붙기 시작해 지속 30마일 내외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목재 건물이 밀집된 곳으로 불이 번져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었다고 시 당국은 밝혔다. 케임브리지 시 역사상 가장 큰 화재였다

케임브리지 시 당국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현재까지 87,000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했다. 시 당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기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모인 구제기금은 수표와 기프트 카드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케임브리지 시는 피해 주민들에게 영구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주가 있다면 시 당국으로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케임브리지 화재 사건은 주택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이번 화재에서 대부분이 세입자인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화마로 잃은 경우가 많았다. 세입자 보험은 이같은 뜻하지 않는 재앙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세입자 보험은 의료보험처럼 반드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칫 그냥 넘긴 사람 경우가 많다. 특히 유학생들은 화재를 비롯한 주택문제에 대해 당장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 보지 않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세입자보험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의 세입자로 살면서 화재 피해를 입을 확률이 그리 높지 않기에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케임브리지 화재사건으로 인한 재산 피

해, 그리고 인명 손실과 관련한 소송비용 등 막대한 지출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남의 일만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미국에서 세입자 보험은 보통 10만 달러 이하의 재산 손실을 보전해주는 보험 약관을 가진 것들이 많다. 이 경우 한 달 보험료는 많아야 20달러를 넘지 않는다.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지만, 일년치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불했을 때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세입자 보험은 온라인 보험이 가장 일반적이고 저렴하기 때문에 바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 보험은 지진이나 홍수 피해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모금 홈페이지 : <https://www.gofundme.com/cambridge-mayors-fire-relief-fund>
부동산 소유주 주택 제공 문의: 617-349-4321
itshunne@bostonkorea.com



지난 주말 캠브리지에서 일어난 화재는 1개 동이 전소되고 16개 동의 건물에 손실을 입혀 12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미국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시의 한 도로에 4일 거대 싱크홀에 차량 두대가 빠져 있다. 이 사고로 여성 보안관 1명이 숨졌다

텍사스 샌안토니오 거대 싱크홀 여성보안관 숨져

전날 폭우로 하수관 깨지면서 싱크홀 생긴 듯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미국 텍사스 주에서 4일 거대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2대가 빠지고, 1명이 숨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 30분쯤 텍사스주 남부 샌안토니오의 한 도로에서 깊이 3.6m의 거대 싱크홀이 생겼다.

이 사고로 차량 2대가 싱크홀에 빠졌다. 한 운전자는 주변인의 도움으로 구조됐지만, 퇴근중이던 여성 보안관(보좌) 도라 린다 나시하라는 구조되지 못한 채 싱크홀에 차오른 물에 빠져 숨졌다.

샌안토니오 시 소방당국은 5일 "인근에 기차가 지나다니며

생긴 진동으로 지반이 불안정해 진데다 전날 내린 폭우로 지하 하수관이 깨지면서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싱크홀은 하루만에 더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이비 테일러 샌안토니오 시장은 "사고 지역은 노후화된 하수관 교체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곳"이라고 설명하며 "숨진 보안관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나시하라가 근무한 백사 카운티 범범 보안팀도 "사고 당시 나시하라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며 "유가족과 친구들에게 위로 를 전한다"고 밝혔다.

yjyj@news1.kr

높아진 화재 보험 가입의 중요성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폰도 오픈 하우스
(11월 20일 일요일 11시~12시 30분)

Townhouse In Acton

1,350 SF (finished basement not included),
2 Beds, 4 Beds, 1 Garage,
1 Office space, Loft, Open plan

ASKING: \$525,000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e-mail) thepeterginateam@gmail.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협약해지는 中-트럼프 설전... "입 다무는 법 배워라"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중국 관영 매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외교 초심자"로 비하하는 등 일제히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당선 축하 통화를 나누며 일으킨 파문이 중국과 미국 차기 행정부 간의 달라진 관계를 미리 보여준다는 평가 나온다.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환구시보는 6일자 신문 1면을 할애한 기사에서 트럼프가 좁게 "입을 다물지 못하는 능력"이 있다고 비판하며 그가 "도발과 거짓말"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이날자 해외판 1면 칼럼에서 트럼프를 힐난했다. 신문은 "중-미 관계를 어지럽히고 균열을 일으키는 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전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의 경우 트럼프를 "외교 초심자"(diplomatic rookie)로 비하하면서 그가 행동을 자제하지 않으면 "고국에 값비싼 문제들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일 트럼프는 차이 총통과 나눈 전화 통화를 통해 미국 역대 행정부가 지난 37년 간 지켜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뒤흔들었다.

중국 외교부가 즉각 반발하자 트럼프는 4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미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남중국해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한다고 맞불을 놔다. 변함 없는 트럼프의 자세에 대한 중국의 공식

반응은 없었다.

다만 중국은 국영 매체나 관변학자들이 이용해 정부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관례가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이날 쏟아져 나온 중국 매체들의 비판은 사실상 트럼프의 맞대응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엘로카드'로 해석된다.

환구시보 영문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칼럼면을 트럼프 비판으로도 배웠다.

신문은 중미 관계가 지난 수년간의 조심스러운 관리 끝에 균형점에 올라온 것이라며, 트럼프가 이 균형에 "잡음을 빚을 수는 있지만 주요 권력 경쟁의 규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 도발을 감행할 "충분한 자원이 없다"며 "트럼프가 중국에 퍼부은 트윗은 그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있다. 이는 중국을 살핀 양으로 여기고 그 살점을 하나 떼가려는 것"이라고 트럼프 외교 정책을 비하했다.

또 "트럼프는 미국의 번영을 위해 다른 나라를 약탈하려 한다"며 하지만 그는 곧 "미국이 최대 수혜자인 현

세계 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다른 기고문에서도 "트럼프는 중국과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걸 곧 깨닫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중미 간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동안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속해 미국 일자리를 수백만개 빼앗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중국은 이 같은 수사가 '빈 수레가 요란한' 격이길 바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의 진심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의 진심은,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인 중국에 계속해서 견제와 공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차기 미 행정부 하에서 미국을 대하는 계산법이 달라질 것이라고 해석했다.

자칭구오 베이징대 교수는 AFP에 트럼프의 발언이 "심중하다"면서 "만약 취임 후에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같은 노선을 취한다면 중국은 생각을 달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cef08@news1.kr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6일자 기고문 삽화, 중국을 상징하는 커다란 팬더를 향해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가 자갈을 던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美법원, 미시간주 재검표 중단 명령 위스콘신만 진행

3개주 가운데 2개주 좌절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 대선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된 재검표가 7일 연방법원의 판결로 미시간 주에서 중단됐다.

미 CNN에 따르면 마크 골드스미스 미국 연방지방법관은 이날 밤 미시간 주 선거위원회에 재검표 중단 명령을 내렸다.

골드스미스 판사는 재검표를 요청한 질 스타인 녹색당 대표가 선거 부정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재검표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미시간 지방법원은 스타인 대표에게 재검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면서 지난 5일 시작된 재검표에 이미 잠정 중단 명령을 내렸던 상태. 이에 스타인 대표가 항소했지만 결과는 또다시 패배로 나온 것이다.

지방법원은 스타인 대표가 선

거에서 1%만을 득표해 개표 불이익을 봤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승리로 이끈 3개 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주 재검표는 위스콘신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맥이 끊기게 됐다.

지난 3일 스타인 대표는 100만 달러(약 1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며 펜실베이니아에서 재검표 요구를 철회했었다.

현재 재검표는 위스콘신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스타인 대표는 이번 판결을 제6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미시간에서까지 재검표가 지연되면서 700만달러(약 81억원) 가량을 모금하며 탄력이 붙었던 재검표 동력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icef08@news1.kr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aj.usgft@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어린이 선물상자 100% 완성이기 위해
선물상자 100% 완성이기 위해
선물상자 100% 완성이기 위해

문의 617.248.3131 Happydol@ymail.com

RE/MAX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택 | 콘도 | 커머셜
점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노벨경제학상 하트 "트럼프노믹스, 세계경제에 해악"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올리버 하트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가 보호무역주의를 초래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하트 교수는 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무역협정을 파괴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 이는 세계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에도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트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단순한 빈말에 그칠지도 모른다"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수입품에 최대 4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트 교수는 세계화에 뒤쳐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이나 소득재분배 등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트 교수는 "(세계화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

찾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든다"면서 "부자 증세 등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트 교수는 지난달 1일 대선에 앞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에 반대하는 경제학자 370인 공개서한에 동참하기도 했다.

당시 서한에서 경제학자들은 "트럼프는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있다. 그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현실이 아닌 '망상'을 부추긴다"면서 그는 "그저 무역과 세제와 관련해 잘못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하트 교수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한 벤트 흄스트롬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나 트럼프 현상 등 전 세계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움직임이 역사상 전례 없는 새로운 현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트 교수와 흄스트롬 교수는 1970년대 후반 계약이론 연구를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오는 10일 열리는 노벨상시상식 참석차 스톡홀름을 방문했다.

kirimi99@news1.kr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올리버 하트 하버드대학교 교수(왼쪽)와 벤트 흄스트롬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

애플 "아이폰 6S 전원 꺼짐 현상, 생각보다 광범위"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아이폰 6S의 전원 꺼짐 문제의 규모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고 애플이 6일 밝혔다.

최근 아이폰 6S 일부 제품들이 배터리 잔량이 충분히 남은 상태에서 기기가 갑자기 꺼지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애플은 문제가 되는 기기의 배터리를 무상 교체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당초 애플은 지난해 9~10월 사이에 제조된 기기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날 애플은 지난해 9~10월 이전 제조 기기까지도 문제가 확대될 수 있음을 밝혔다.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애플은 중국판 홈페이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범위(지난해 9~10월) 밖의 고객 일부 역시 갑작스러운 꺼짐 현상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전원 꺼짐 현상이 "아이폰이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조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애플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음주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애플은 iOS 업데이트 버전에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생산된 아이폰 6S 배터리의 구성 요소 일부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돼 배터리가 정상 배터리보다 빠르게 소모되며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원 꺼짐 현상이 단순한 배터리 문제가 아닌 최신버전인 iOS 10.1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hemingway@news1.kr

계산대 없는 마트... '아마존 고' 시애틀에서 시범 개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시애틀에서 계산대가 없는 오프라인 식료품 매장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식료품 유통 업체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의 식료품 매장 '아마존 고(Amazon Go)'는 쇼핑객들이 선반에서 집어드는 상품을 탐색하는 센서를 이용해 고객의 아마존 계정에 계산서를 청

구한다. 쇼핑객들은 입장할 때 아마존 고 모바일 앱을 스캔해야 한다.

아마존 고에서는 인스턴트 식사 및 간식, 빵과 우유와 같은 주식부터 장인이 만든 치즈, 지역에서 생산한 초콜릿 등을 살 수 있다.

아마존 고는 현재 아마존 직원들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내년부터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아마존은 전했다.

hemingway@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방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턴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인제돈 맛과 실습 가능.
 주방기술자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방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방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정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양념 소스	참깨 소스	과전 파우더
치킨간장소스	불고기 소스	프렌치프라이 시즈닝
치킨 파우더	순두부 시즈닝	부대찌개 소스
치킨 염지제	순두부 다대기	갈비 소스, 자육복음 소스
떡볶이 소스	샤브 육수	김치찌개 소스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상곡 638-4 102동 파방돌

파방돌 공장 전경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우샴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식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연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저성장에 환율까지 경고등...기업들 탄핵 이후 더 두렵다

2%대 성장 고착화...내년 환율 달러당 1300원 전망도
탄핵정국으로 정책 진공...사업계획 이래저래 차질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정국속에서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쏟아지며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2%대 초중반 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원화가 달러대비 큰 폭으로 절하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원화 절하는 수출기업엔 유리하지만 수입제품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외화부채가 많은 대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을 키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무역정책을 펼치며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문회 준비와 특검조사를 앞두고 있는 대기업들은 내년 인사는 물론 사업 계획도 제대로 짜지도 못한 채 연말을 보내고 있다.

◇ 2%대 성장 고착화...내년 달러/원환율 1300원 전망도

최근 내년 경기를 예측하는 우울한 보고서 2개가 비슷한 시기에 공개됐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7 글로벌 외환 10대 테마' 중 하나로 원화 매도를 2순위로 꼽았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 달러매수, 원화 매도의 견을 제시했으며 내년 각 분기별 달러/원환율 전망치는 1분기 1220원, 2분기 1250원, 3분기 1275원, 4분기 1300원으로 제시했다. 씨티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도 모건스탠리와 마찬가지로 한국 원화 약세를 점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KDI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KDI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정치 리스크가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화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수출 전선에 보호무역주의 먹구름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들에겐 호재로 보일 수 있다. 원화로 환산된 수출가가 높아져 달러표시 가격을 낮춰 판매를 늘릴 기회가 된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환율 수혜를 누릴 만큼 호락호락 하지 않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을 제외하면 별 불똥이 없고 저유가 기조

로 중동 등 신흥시장도 돌파구가 되기 어렵다. 중국도 중성장 기조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발빠른 추격이 이뤄지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른 보호무역주의다. 트럼프는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35% 관세부과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과 한미 FTA도 어떤 식으로 불똥이 될 지 아직 알 수 없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 공장에서 TV, 생활가전 등을 생산해 미국시장에 팔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아차 역시 올해 9월 멕시코공장을 준공, 미국시장을 주로 겨냥한 차를 생산하고 있다.

통상마찰 심화도 우려된다. 그간 삼성전자 등 한국 가전업체는 미국의 반덤핑관세로 잦은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관련 반덤핑 관세는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관세 판정도 아직 남아있다.

한편 내수경기에는 원화약세가 득이다. 원자재를 포함, 수입제품값 상승이 소비와 생산에 악영향을 주기 때

문이다. 최근 OPEC은 원유 생산량 감소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유가가 급등, 시차를 두고 휘발유가격 등에 영향을 주게 됐다.

◇ 탄핵국면은 곧 정책진공...사업 계획 이래저래 차질

탄핵 정국 속에서 경제외적 리스크도 커졌다. 정부의 정책기능이 마비되면서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짜는데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 벌써 내년 경제 운용계획이 나왔어야 하지만 탄핵 태풍속에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의할 예정이다. 탄핵이 가결될 경우 박근혜 정부는 식물정부 상태에 빠진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에서 내각은 경상업무는 수행하겠지만 내년 이후의 전략적인 정책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회에서 의결서를 넘겨받은 현

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대통령 탄핵을 확정하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 정국이 이어진다. 대선을 통해 새 대통령이 등장할 내년 중반까지는 정책은 진공상태나 다름 없다.

특검 수사도 기업의 에너지를 빼는 요인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9대 기업은 국정조사에 특별검사를 받느라 새해 사업계획도 짜지 못하고 임원 인사도 모두 중단하기도 했다.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이를 준비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셈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임원 인사 이후 새롭게 조직을 정비해 새해 계획을 짜야 하는 시점인데 정치 이슈로 어수선한 날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혼란이 이어지겠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xpert@news1.kr

KDI 경제전망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내총생산	2.8	3.3	2.6	1.9	2.6	2.2	2.5	2.4
(계절조정 전기대비)	(0.5)	(0.8)	(0.6)	(0.4)	(0.7)	(0.6)		



전병렬 산부인과

“여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임산부 산전후 관리 및 분만

- 임신진료
- 초음파 검사
- 출산 케어

전 연령대 여성들을 위한 포괄적 진료

- 자궁암 검사 및 예방 주사
- 부인과 대소수술
- 각종 성병 검사, 치료
- 각종 피임법 및 갱년기 장애

지금 전화하세요 **781.787.3003**
다음날 예약 진료 가능

Women's Healthcare of Woburn

444 Washington Street, Suite 100
Woburn, MA 01801
www.billchunmd.com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DEC. 9 - DEC. 15, 2016

KO-MEX WILL NEVER LET YOU DOWN.

Quesadilla is a near-perfect food, so is Bulgogi. But what if the two came together to form one flawless meal of deliciousness?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한국식 불고기와 풍성한 치즈를 토피아 사이에 넣어 새롭게 탄생시킨 한국 멕시코 퓨전음식, 불고기 케사디아를 H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p>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8cm/Box \$24.99</p>	<p>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0.88</p>	<p>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Box \$3.99</p>	<p>Washington Fuji Apple-Premium 워싱턴 후지 사과 트리미엄 \$1.49</p>	<p>Kabocha 단호박 \$0.88</p>
<p>Purple Sweet Potato Hawaii 하와이산 보라색 고구마 \$1.49</p>	<p>BLUEJAY Mandarin w. Stem & Leaves 블루제이 잎달린 만다린 \$1.99</p>	<p>ZESPRI Sun Gold Kiwi 제스프리 씬골드 키위 \$21.99</p>	<p>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49</p>	<p>JINGA Tofu 진가네 두부 Firm/Soft - 15oz \$0.99</p>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Pork Spare Rib Cut for Stew 돼지 찜갈비 \$4.49</p>	<p>Chicken Tenderloin 닭안심 \$1.99</p>
<p>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돈까스용 돼지고기 \$4.99</p>	<p>Pork Baby Back Rib (Whole Piece) 아기 돼지 등갈비 \$4.99</p>
<p>Pork Spare Rib for BBQ 바베큐용 돼지 등갈비 \$2.99</p>	<p>Sliced Thinly Beef Brisket for Sbabu Sbabu 샤브샤브용 멧돼지 차돌박이 2mm \$9.99</p>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Kyu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미 15 lbs. \$9.99</p>	<p>SUHYUP Premium Roasted Seaweed 수협 김 산동미 8.7oz x 100a/Box \$9.99</p>
<p>CJ Cooked White Rice CJ 맛만 팩스 7.4oz x 100a/Box \$14.99</p>	<p>HWAOREUM Canned Bar Top Shell 해오름 광둥어 홍조림 14.1oz. \$4.99</p>

HELLO HOME Hello Home Recipe Contest!

헬로홈과 함께하는 나의 레시피 이벤트

당첨품: 밥솥,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공기조화기,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전기담배꽂이, 전기담배꽂이, 전기담배꽂이

Please visit Hellohome.com for detailed information.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Salted Yellow Croaker 자반 참조기 \$5.99</p>	<p>Head-on White Shrimp 머리있는 흰새우 30 - 40g \$5.99</p>
<p>TONGTONGBAY Oyster 8oz/pkg \$6.99</p>	<p>TONGTONGBAY Bok Kum Anchovy 동동배 묶음멸치 5oz/pkg \$5.99</p>
<p>GLOBAL Unagi Kabayaki 글로벌 우나기 6oz/pkg \$4.99</p>	<p>Monkfish Tail 아귀꼬리 5.6oz \$3.99</p>

<p>NONGSHIM Spicy Seafood Chomping Noodle Soup 4.5oz. x 6ea/pkg \$4.99</p>	<p>CHUNGJONGNE Sunchang Soybean Paste 청정원 순창 대래식 생원장 59g oz. \$7.99</p>	<p>SHIRAKU 100% Pure Sesame Oil 시라구 참기름 59g oz. \$9.99</p>	<p>COLAVITA Extra Virgin Olive Oil 콜라비타 올리브 오일 348 oz. \$12.99</p>	<p>S&B Golden Curry S&B 골든 가래 2.4oz. \$2.99</p>
<p>HWAOREUM Canned Boiled Macaroni Pike 해오름 분짜 콩조림 14.1oz. 2\$3</p>	<p>SPAM Hormel Foods Spam All varieties 7.2oz. can/ea 2\$5</p>	<p>HWAOREUM Dumpling 해오름 만두 2.5oz/10ea \$4.99</p>	<p>KTCWY Cooked Seasoned Loach Soup 케이티윈 냉면 추어탕 15.2oz \$5.99</p>	<p>DUNSHU Maltin Coffee Mix 동서 맥심 커피믹스 100oz/1000ea \$12.99</p>
<p>KIDORI Miso Sesame & Coconut 5.6oz \$0.99</p>	<p>HWAOREUM Banana Flavored Milk 해오름 바나나맛 우유 200ml x 6ea/pkg \$4.99</p>	<p>HWAOREUM Round Plastic Basket 플라스틱 둥근바구니 10cm/10ea \$2.99</p>	<p>ZUJUSHI Lunch Jar 5L/1000ml/1ea/Box \$29.99</p>	<p>CHUNDOO Pressure Rice Cooker 10L/1000ml/1ea/Box \$195.99</p>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floo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prices exclude taxes and other applicable charges. H MART BURLINGTON STORE: 43 W. Essex Street,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02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탄핵표결 D-1, 여야 긴장감 최고조...野, 의원직 사퇴 배수진

與 친박, 물밑 설득 주력...차 입장표명도 추진
野-與비박, '가결' 올인...野 전원 의원직 사퇴사

(서울=뉴스1) 김현, 조규희, 김정률, 박승주 기자 =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탄핵안 표결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친박(친박근혜)·주류측은 이날 탄핵안 가결에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설득 작업을 벌이며 '탄핵 부결'을 위한 총력전을 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전원(국민의당 당원권 정치 의원 제외)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배수진을 치며 '탄핵 가결'에 올인했다.

다만 '탄핵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비주류 내에서 탄핵안에 기재돼 있는 '세월호 7시간'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권이 거부 입장을 정함에 따라 탄핵 표결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與 친박, 중립 및 초선 의원들 설득 주력...탄핵 부결' 안간힘

새누리당 지도부와 주류측 중진 의원들은 이날 중립 성향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표 행사를 당부하는 등 '탄핵 부결'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주류측은 또 당내 의원들 중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내용이 적시된 데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를 파고들면서 '반대표'를 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주류측은 또 전날(7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최순실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진술이 나온 것도 적극 부각시켰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대통령이 연애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고, 그 뒤에는 '굿판을 했다', '(성형)시술을 했다'고 보도가 됐다. 그 뒤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식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사유에 넣어 탄핵을 추진하려는 게 정말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도 모르고, (최씨가) 사용 방법도 모른다는 증인이 나왔다"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나중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태

블릿PC와 자신이 무관하다고 밝힌 것을 거론, "당에서 공식적으로 종편방송인 jtbc에 태블릿PC의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류측은 흔들리고 있는 의원들을 붙잡기 위해 9일 탄핵 표결 전까지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자진 사퇴' 의사를 직접 밝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전날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내년 4월 자진 사임의사를 국민 앞에 직접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野-與비박, '탄핵 가결' 총력전...野, '세월호 7시간' 삭제 거부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삭제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는 한편,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탄핵 가결을 위한 배수진을 쳤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적어도 비박계 의원이 40여명에 가까운 명단을 쥐서, (탄핵안에 대한) 공동발의에 찬성한다면 앞부분에 있던 세월호를 뒷부분으로 옮긴다는 수준의 수정 협상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공동발의 참여의사를 안 밝혀서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세월호 7시간' 삭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세월호에 대해 바꾸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인 자리에서의 합의, 이를 야3당이 (또) 합의되면 우리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자일획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모두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사퇴서를 의원 전원이 작성해 지도부에 제출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국회 역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전 의원 사퇴 결의서는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민주당의 국민을 위한 총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진행해온 탄핵버스터를 이어가는 동시에 오후 6시부터는 촛불집회와 밤샘 농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9일 표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국회 본청에서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

탄핵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는 "탄핵안 부결을 전제하지 않는다"(김무성)며 흔들림없는 '탄핵 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주류측의 물밑 설득 작업을 경계했다.

비주류의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찬성이든, 반대든 설득하는 것은 정치의 과정이지만 외압과 회유 등 조건을 걸어서는 안된다"면서 "소신 투표를 방해하려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이 '세월호 7시간' 삭제를 거부한 데 대해선 "대단히 아쉽다. 단 한 표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비상시국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며 재고를 요청했다.

gayunlove@news1.kr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

미리보는 '포스트' 탄핵정국...가결·부결 4대 시나리오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시나리오① 220표 이상 압도적 가결...與 비주류 장악, 野초기대선 고삐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200명이다. 야 3당과 야당 성향의 무소속,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모두 찬성표로 전제하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28표가 나와야 한다.

여당 비주류는 최소 30표, 최대 45표의 찬성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친박계 내부에서도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지만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을 던질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 최대 10명 안팎으로 꼽힌다.

이들을 모두 찬성표로 산정하면 탄핵안은 의결정족수를 넘긴 220표를 훌쩍 넘겨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렇게 탄핵안이 압도적 찬성표로 가결되면 우선 여당 주류 친박계는 사실상 '폐족'이 될 것이라 관측이 높다.

새누리당 주도권이 완전히 비주류로 쏠리면서 비주류가 주장하고 있는 '당 해체' 또는 해체 수준의 혁신

에 급물살이 트일 전망이다. 주류 친박계가 당내 소수파로 전락한 채 비주류가 당을 장악, 대선 체제로 돌입하면서다. 다만 지지율 회복과 친박계와의 잠재된 내홍, 야권에 비해 대선주자가 열세인 점은 여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야권은 '여소야대'의 힘을 확인한 것을 동력삼아 조기대선을 치르자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압도적인 탄핵 통과를 엄중한 민심이라는 논리를 통해 여권이 최악의 수세에 몰린 시기에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것이다.

야권 유력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탄핵 가결-박 대통령 즉각 사임'을 주장하는 이유로 조기대선을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시나리오② 한자릿수 턱걸이 가결...與 비주류 한계, 차 더 버티나

탄핵안이 가결은 되는데 찬성표가 200표대 한자릿수 초반에 그치면 상황은 앞선 시나리오보다 복잡해진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현재 최대 45표와 친박계 내부 이탈표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찬성표가 200표대 초반대라면 친박계 내부 이탈

은 거의 없다는 점, 동시에 비주류 세력의 한계가 수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 경우 친박계도 일정 수준 이상의 당내 주도권을 확인한 셈이기 때문에, 여당 계파·노선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역시 앞서 밝힌 대로 '즉각 하야' 여론에도 현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 이상 버틸 듯하다.

이렇게 탄핵안이 가결되면 여당 내부가 가속화할 것이라 맥락에서 야당이 '전략적 반대표'를 일부 던져 찬성표를 200표대 초반으로 맞출 것이라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야당으로서는 박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하고 여당까지 자중지란에 빠진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대선체제를 정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③ 부결되고 차사퇴 철회하면...민심 격앙, 정치권 나락으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정국은 유례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성난 촛불 민심이 직접 정치권을 겨냥할 수 있다. 국회의원직 사퇴, 주요 정치인 정계은퇴는 물론 국회 해산 여론이 분출될 수도 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우선 새누리당이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주류 친박계는 찬성표를 던진 비주류를 향해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촉구하며 부결 책임을 돌릴 전망이다. 비주류의 집단 탈당으로 분당이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이다.

야당들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그 책임을 오롯이 새누리당에게 돌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압도적인 '촛불 민심'과 여소야대를 등에 업고도 탄핵을 관철하지 못했다라는 비판 여론이 야권에도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탄핵안이 부결되고,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의사까지 철회하는 시나리오가 최악으로 꼽힌다. 탄핵안이 부결됐고, 박 대통령이 제시한 '퇴진 시기 여야 합의'도 물 건너갔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반등을 모색할 계기가 생길 법하다.

이 경우 현재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쏠리는 비판 여론이 야당에게까지 번질 전망이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시나리오④ 부결되고 차4월 사퇴...후폭풍 속 거국내각으로 조기 대선 탄핵안 부결로 인한 정국 혼돈 가운데서 박 대통령이 퇴진하겠다는 뜻을 고수한다면 정치권은 '과도내

각' 정국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여당 지도부와 의 면담에서 4월 퇴진이라는 당론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라는 요구는 계속 나올 수 있지만 대통령이 '퇴진'을 명시한다면 퇴진 시위 동력은 점차 약해질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사견을 전제로 "탄핵이 부결돼도 4월 퇴진-6월 대선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표는 탄핵안을 부결시키려는 취지로 이렇게 주장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권력의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부결-4월 퇴진'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탄핵안 부결로 책임론에 휩싸인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거국중립 내각 구성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 이 거국내각은 60여일간 6월 대선을 준비하고,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단계 없이 당선 즉시 정권을 이양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정계개편 논의도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riwhat@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t@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e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kshin@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LISTINGS

Residential

Single Family

5 Duxton Lane Acton MA
9,547sqft, 9.13 Acres 5 Bed
4.5 Bath
Asking \$1,489,000

Residential

Condo

28 Boylston Rd, Unit 1 Newton MA
동문형의 2 Bed 1 Bath 870 sqft
Condo 2 parking space
Asking \$448,000

Residential

Condo

22 Westland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200sqft 2차
recessed Ceilings, Best Overall Energy,
매일 1-2시간의 가격은 \$1 미인 1년
Asking \$291,000, \$399,000

Commercial

한식&일식 식당

Physical 양재 위치, Full Equip,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700,000

LISTINGS

- 1. Full Profit 3000sqft 뉴타운 구역, 무인상점 \$1,800,000 **SOLD**
- 2.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3.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4.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5.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6.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7.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8.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9.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10.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11.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12.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13.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14.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15.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16.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17.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18.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19.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 20. Full Profit 2000sqft Southwicks 인근 위치, Address \$65,000

Commercial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면적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799,000

Commercial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easance 지역
좋은 위치
Asking \$190,000

Commercial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Commercial

비즈니스 폰도

Brookline
현재 세무소영입함.
좋은 임대수익
Asking \$509,000

Commercial

한국식당

보스톤 남쪽에 위치
Full liquor, 양장면 수리
넓은 공간
Asking \$140,000

Commercial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80,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김기춘 '모르쇠' 일관...더 꼬여가는 최순실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최순실, 비망록 등 모든 의혹 부인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두차례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최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됐다는 비판이 8일 제기됐다.

전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열린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김 전 실장은 각종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의혹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는 목목부답으로 일관하며 자신과 최씨와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 "모릅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일은 알고 있지만 관저 내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들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의료진료를 받았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저 일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고도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머리 손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김 전 실장을 향해 "왕실장이 아니라 오리발실장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싶다"며 "나중엔 부인도 모른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순실 모른다"고 했다가 "착각했다"로 말바꾸

김 전 실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최순실과 알고 있었냐'는 중요한 질문에 역시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최순실을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통화라도 하지 않았겠냐"며 "검찰 조사를 하면 알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지난 2007년 7월 19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청문회 동영상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자가 패널들의 최순실 관련 루머에 대한 질문을 받는 모습이 공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 의원은 "김기춘 실장이 바로 앞에 있었던 후보검증 청문회"라고 지적하자 그제야 김 전 실장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며 "접촉한 적이 없다"고 황급히 해명했다.

◇박 대통령 휴가에 최순실과 동행?... "전면부인"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저도 휴가에 최순실과 동행했냐는 질문에 대

해서는 당시 병원 진료 기억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반박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7월 30일 경남 통영 저도로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간적이 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2013년 7월 15일 병원에 입원해 16일 전립선 수술을 받고, 19일에 퇴원해 8월3일까지 집에서 안정을 취했고, 3일에는 병원에 가서 외래진료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영환 비망록 속 '세월호 인양반대'... "그런적 없다"

김 전 실장은 고(故) 김영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에 자신이 '세월호 참사 시신 인양은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과 관련,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비망록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 전 실장은 "회의를 하다 보면 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도 가미돼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세월호 인양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지시한 적이 없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인양문제를 긴밀히 의논한 적이 있다. 저도 지금 자식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왜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웬만해서는 거친 얘기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 김기춘 증인, 당신은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차병원 줄기세포 시술 의혹 "의식 불명 상태 아들 위해 찾아 간 것"

김 전 실장은 "(일본의)차병원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누구 소개로 갔냐"는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의 질문에 "차 병원은 (의식불명 상태인) 아들의 치료를 백방으로 알아보다 상담을 받으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차병원이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미용 전문병원이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김 전 실장이 "몰랐다"고 답하자 "오비이락이고 우연의 일치다"고 비꼬았다.

◇문체부 인사개입 등 직권 남용 의혹... "한 일이 없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 승마대회 성적 문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자르라고 한 일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길들이기 일환으로 인사 개입을 했고, 문체부 길들이기의 시발점은 정유라가 연루된 대한승마협회 감사보고였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재임하던 동안 정지작업을 하거나 한 일은 전혀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jrkim@news1.kr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비겁 · 찌질한 우병우...그런 자가 국정 최고 실세였다니"

시민들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강제로 청문회 자리 앉혀야"

(서울=뉴스1) 사건팀 = 7일 거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국회가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냈지만 그는 어디엔가 퐁퐁 숨어서 거부했다.

그는 동행명령장을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버텨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지식을 심본 활용해 지위와 상식에 맞지 않게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8일 뉴스1이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런 그를 지켜보며 분노하고 또 허탈해 했다. "이런 자가 국정 최고 실세였다니" "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그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법지식을 자기 몸 지키는데만 쓰고 있다" "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

회사원 김영수씨(34)는 그의 얘기가 나오자 격하게 반응했다. 김씨는 "처음부터 불구속 수사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검찰 수사에서 팔짱 끼고 웃는 사진 보면서 소름이 돋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런게 '소시오패스'구나 싶었다"며 "청문회도 나오지 않는 그를 보면서 국회도 검찰도 무시하는 그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 걱정까지 된다"고 우려했다.

회사원 신일선씨(37)도 "우병우가 권력 쪽에 있다 보니까 오만한 마음을 가진 것 같다"며 "그는 시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진짜'임에 틀림없다"고 분노했다.

대학생 한모씨(24·여)는 오히려 담담했다. 한씨는 "세상 무서울 거 없는 사람이 강제력도 없는 국회 동행명령을 받는 게 우습다"며 "그에 관한 기사를 읽어봤는데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도 문제가 불거진 뒤 한참 후에야 이뤄졌고 조사 때는 팔짱 끼고 여유 부리고 이후에는 뭐 나온 것도 없다"며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나 쓸쓸하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주부 김수지씨(40·여)는 우전수석을 '숨은 권력자'라고 정의했다. 김씨는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 정작 청문회에는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비겁하다고 생각한다"며 "태풍의 눈이랄까, 나라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 혼자만 편이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우전수석을 강제로라도 붙잡아 청문회 의자에 앉혀야 한다는 시민도 많았다.

회사원 석현준씨(29·경기 광명시)는 "지는 죄가 있어 도망다니는 건 알겠다"며 "그러나 우병우가 이번 사태에서 제일 문제인 사람이기에 강제로라도 잡아 청문회 자리에 앉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꼭 잡아야 하는데 못 잡고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찾고 안 잡는 느낌이 강하다"며 "우병우가 고위공직자나 권력자를 잘 알고 있어서 더 쉽게 도망다닐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가 김모씨(50·여)도 석씨와 같은 생각이다. 김씨는 "반드시 (청문회에) 데려다 앉혀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답답하다"며 "박근혜가 머리라면 우병우는 몸통이다. 머리가 하라는 대로 몸통이 행동했는데 몸통을 못 잡으면 어떡하냐"고 했다. 이어 "동행명령장을 직접 받지 않으면

데려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하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문회에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A교수는 "우전수석은 법치가 최고라고 믿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법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법은 최소한의 개념이다. 상위 개념인 도덕적·정신적 규범을 그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ickim@news1.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두문불출이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우전수석의 모습



샤부샤부

무제한 BBQ 스페셜

다양하고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COURSE "A" \$25.95

불고기/차돌배기/치킨 테리야게/치킨 불고기/불닭/돼지 갈비
대패 삼겹살/돼지 통심/돼지 불고기/곰장구이/돈까스/치킨캐스
야채/짜장/순두부찌개/단장찌개/계란찜/공기밥/안두 튀김

COURSE "B" \$28.95

COURSE "A" 포함
갈비/LA갈비/통심구이/특별치 삼겹살/매운 흑돼지 삼겹살
새우구이/푸꾸미구이/오징어구이/새송이버섯/비밀구이
오살불고기

LUNCH SPECIAL \$18.95

불고기/치킨불고기/차돌배기/돼지 삼겹살/돼지불고기
돼지갈비/치킨 테리야게/불닭/모듬 야채구이/순두부찌개
단장찌개/계란찜/공기밥/짜장



영업 시간 **화-목**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금, 토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1시

단체모임에 좋은 Private Room 제공 (40-50인)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10% OFF**



투정하고 맛있는
수라 BBQ가 함께
소주 한잔 어때요?

수라 BBQ 보스턴
781.391.5606

27-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구) 청기와 식당 위치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아티스트는 혁신적인 네일아트 디자인의 트렌드를 이끄는 전문 직업입니다.

MA Nail School Year 10 * Full-time School

(MA주 한인 운영)
네일 자격증 학원

- > 저렴한 Tuition
- > MA주 내 최단기 자격증 취득 과정

겨울 수강생 특별할인 기간 (~ 2월 28일)

현재 학원내에서 관영종인 주말 미술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네일아트의 예술성예의 가능성을 넓히고 순수미술적 감각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사: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Pratt Institute Fine Art 석사)

WEEKEND ART CLASS

www.artwithkatbyun.com

주말 미술교실은 학생들이 실기인습을 통해 순수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교를 배워 실력향상을 도모합니다. 미술을 통해 삶의 예술예의 가능성이 열려지도록 지도합니다.



드로잉, 수채화, 유화
포토폴리오 제작
학생 및 성인반 개설
Call 810,586,3727(미술 수업 상담)



76 Winn Street #1C, Woburn, MA 01801
bca.76@gmail.com

781.729.8868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r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특검 "최순실-정호성 녹취록"에 국무회의 등 통화 내용있다

파견검사·특별수사관 인선 완료...9일 합류

(서울=뉴스1) 조재현, 성도현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특별검사팀이 8일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이의 통화내용 중 국무회의 등과 관련한 부분을 확보해 검토 중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 부분을 확인한 결과,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 관해 최씨와 정 전 비서관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취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이 녹취록은 검찰에게서 넘겨받은 1톤 분량의 수사기록 사본 가운데 포함돼 있었다.

녹취록에는 일부 회의와 관련해 최씨가 지시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다만 "지금은 수사 준비 상황이다. 수사기록 역시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된 것이 아니다"라며 녹취록과 관련된 추가 설명은 삼갔다. 특검팀은 녹취록을 분석해 최씨의 국정 농단 경위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법무부에 요청한 검사 10명의 명단도 확정됐다. 이들은 9일부터 기록검토에 투입된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 10명에 대한 장관대행의 결재가 났다"며 "확정된 검사들에게는 통보가 다 됐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들 명단을 9일 오전 발표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에 추천해달라고 한 특별수사관 40명 역시 9일 인사혁신처의 결재가 떨어지는 대로 특검팀에 합류한다.

특검팀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수사 기록 검토와 증거물 분석 등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cho84@news1.kr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해 꾸려진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靑, 마약류 약물 의문의 다량 처방... "사실상 중독 수준"

"약물로 보면 청와대는 내부 정신과 혹은 호스피스 수준"

(서울=뉴스1) 음상준, 이영성, 김태환 기자 =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들어 8종의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과 의료용 마약을 지속적으로 구매·처방해온 것을 놓고 의료계가 의아해 하고 있다.

청와대 내 불특정 다수에 처방됐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러한 약물들이 소수에만 집중 처방됐다면 '중독'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 처방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암환자 등 중증 통증 치료에 쓰이는 의료용 마약까지 처방된 것을 놓고 논란이 가중된다. 해당 마약들은 미국 등에서 문제를 꾸준히 일으키고 있는 중독성 약물이다.

청와대는 마약류 약물 처방이 누구에게 이뤄졌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여서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이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입수한 '마약류 재산대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취임했던 시기 2013년 2월 이후부터 올해 11월 초까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5품목과 의료용 마약 3품목을 처방해왔다. 청와대는 이 기간에 총 8개 약제 3124정을 구매해 2504정을 사용했다.

향정약은 자낙스와 스틸녹스, 할시온 그리고 디아제팜과 클로티아제팜이다. 의료용 마약의 경우 코데인과 IR코돈, 옥시코돈·날록손 복합

제다. ◇향정약 5종 '수면유도나 항불안용'..마약 3종 '심한 기침이나 중증 통증용'

향정약 5종은 모두 주로 수면유도를 위해 사용하는 약물들이다. 항우울이나 항불안에 쓰이기도 한다.

그중 자낙스는 청와대가 2013년 3월부터 올 11월초까지 기존 재고에 800개를 추가 구매해 현재까지 총 437정을 지속 사용했다.

스틸녹스는 같은 기간 총 978정을 구매(그중 18정은 알 수 없는 특정장소에서 반납돼 추가)한 뒤 현재까지 총 867정이 처방됐다.

청와대는 또 다른 향정약 할시온도 660정 구매해 총 478정을 사용했다. 클로티아제팜은 2015년 1월과 5월 각각 60정씩 처음 구매됐다. 총 115개가 처방돼 5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디아제팜은 2013년 기준 재고량 64정 중 32정만 사용했고 추가 구매는 없었다.

의료용 마약 3개 품목 중에서 중증 통증완화에 사용되는 IR코돈과 옥시코돈·날록손 복합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신규 구매돼 처방됐다.

그중 코데인은 폐렴이나 후두염 등 호흡기 질환에 따른 심한 기침완화에 쓰인다. 하지만 중독성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물로 잘 알려져 있다.

코데인은 기존 이명박 정부시절 재고량 41정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500정이 추가 구매됐다. 그중 472정을 사용했다.

IR코돈의 경우 청와대가 2013년 3월 12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의약품 공급처가 아닌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처음 10정을 처방받은 뒤 다음달인 4월 4일 관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해 11월 26일자에 IR코돈 추가 구매계획이 없다고 별도 표기됐다.

또 청와대는 옥시코돈·날록손 복합제 56정을 2015년 10월 12일 처음 구매했다. 총 28정을 사용해 현재 28정이 남았다. 옥시코돈도 2009년 미국의 한 프로레슬러의 과다복용 중독 사인약물로 밝혀질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로 꼽힌다.

8종 모두 자주 사용할 경우 약물 내성과 중독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 정신과 혹은 호스피스 수준"

약 3년8개월 동안 총 2504정의 향정약과 의료용 마약이 처방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내 소수에만 처방됐다면 중독이 우려된다는 것이 의료계 일부 시각이다.

이명명을 요구한 국내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처방됐는지 모르지만 특히 자낙스, 스틸녹스 등 3개의 향정약이 많이 처방됐는데 내성이 생기는 약물이라 약제를 돌아가며 처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다수의 환자보다 소수에 처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처방된 8종의 약제들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중독성이 있는데

다, 아무리 환라도 마약류 처방이 나오면 잘 안 먹으려 한다는 게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약제들 중 정말 위급할 때 먹는 것까지 포함돼 있어 의구심이 더 크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디아제팜과 클로티아제팜은 수면유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항불안 등 정신적 문제에도 많이 사용되는 약으로 아무한테나 처방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마약인 코데인은 엄청난 기침을 할 때 강한 진통제로 쓴다"며 "IR코돈이나 옥시코돈은 암환자들의 강한 통증 등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항정부터 마약까지 이 정도의 처방량이면 거의 정신과나 치료 어려운 환자들이 있는 호스피스 내 처방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학병원 교수도 옥시코돈 처방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만성통증에 처방하는 옥시코돈은 (부차원적으로) 공황장애 환자가 먹기도 한다. 일반인에게 잘 처방하지 않고 운동선수 등에 자주 처방하

기 때문에 이 약제가 처방된 이유에 대해 주목된다"고 전했다.

이명의 개원가 의사도 "2054개면 365일 매일 먹는다고 했을 때 3년 8개월간 하루에 1개 이상 먹는 꼴이다. 보통 신경과민이나 우울증상에 쓰이는 약들도 포함된 것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의존성이면 과거에도 복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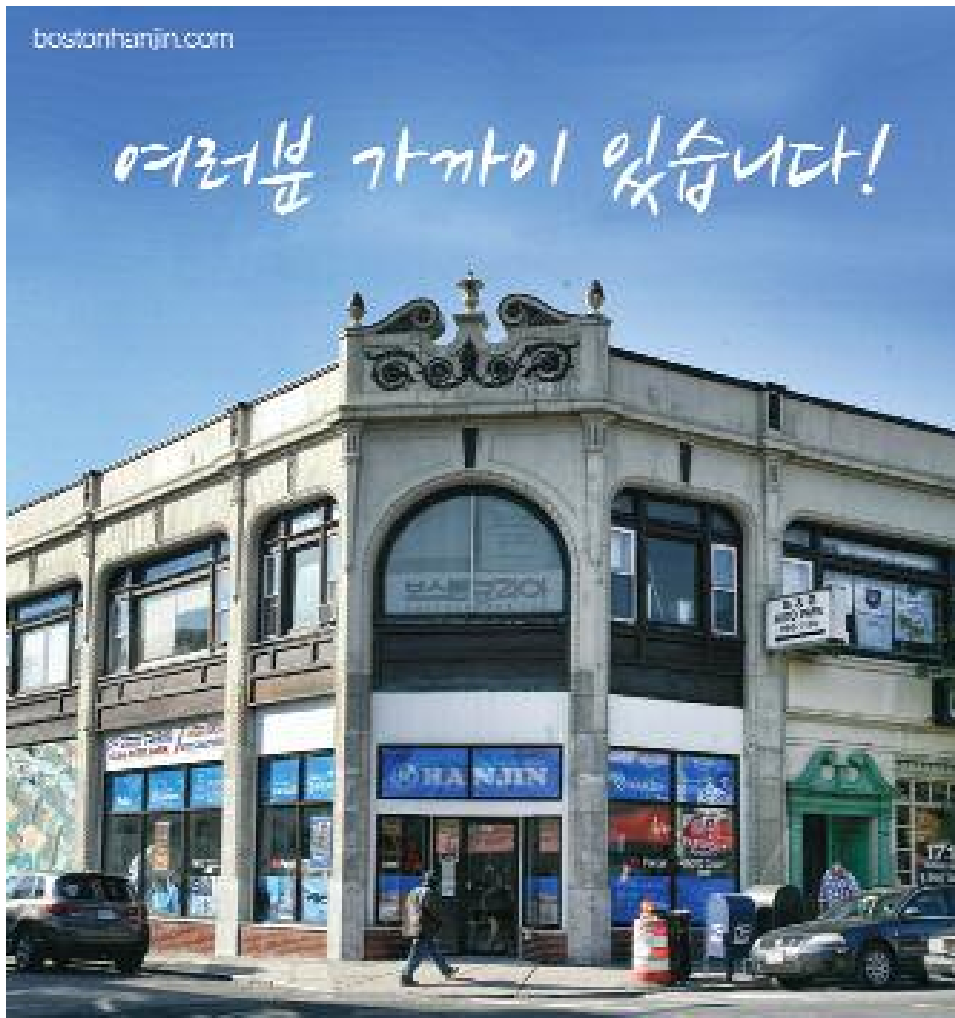
반면 다수에 처방됐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처방량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국내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소수의 사람이 먹었을 때 약물 의존성이 의심되기도 하고 졸피뎀 867정이 과한 것 같긴 하다"면서도 "다만 다수가 먹었다면 문제가 될 만한 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병원 교수 역시 "다수의 환자에게 썼다면 3년 8개월간 처방된 약 수량치곤 많다 적다를 확실히 구별할 정도는 아니"라며 "특히 자낙스는 구조상 향정약에 들어갔을 뿐 강력한 중독성이 강한 약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ys@news1.kr

분류	품명	구매	사용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	800	437
	스틸녹스	978	867
	할시온	660	478
	디아제팜	0	32
	클로티아제팜	120(신규)	115
마약	코데인	500	472
	IR코돈	10(신규)	10
	옥시코돈·날록손 복합제	56(신규)	28
합계		3124	2504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어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도 & 푸도상 튜터링

Nabis Studio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임소문난 치킨 레스토랑
(구)inboston이
파랑돌로
여러분께 가까이 갑니다.



모든 메뉴: Yelp에서 Farandole를 검색하세요

배달 가능지역: Allston(B.U.), Cambridge(M.L.T., Harvard), Longwood, Brookline Village 등

영업시간: 11:30am-11pm

배달주문시간: 4pm-10:15pm

주문전화 :

617.982.7118

(배달시 읍대 맞은편)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Norcom Mortgage 마이클 리 모기지
Mortgage
Norcom Commercial Corp., Inc. 1996.2.27.1420



부동산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한국어 상담

Pre-Qualification 당일 서비스



Michael Lee,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전문 분야

통상 대출
정부대출: FHA, VA, USDA
고정금리, 변동금리 모기지
점보통
피파이낸스
주택담보대출
그외 올림프루브먼트 등

Michael Lee's NMLS #1484242
Real Estate Sales License No. 9534408

Norcom Mortgage 회사 소개

Norcom Mortgage, Direct Lender Founded in 1996
Fannie Mae/Freddie Mac seller/servicer
Ginnie Mae issuer
In-house underwriting, processing, closing, servicing all centralized
In-house appraisal
Same day loan pre-qualification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 **978.314.8818**
Cambridge, MA 02140

의료보험/생명보험/연금보험
메디케어/상해보험
스몰 비즈니스 팩케지 패키지
인슈어런스 브로커

**마이클 리
종합 보험**

2017년 의료보험 평균 20%이상 인상
OPEN-ENROLLMENT 의료보험 무료 상담

www.MyInsuranceMA.com (한국어 웹서비스)

2017년 매사추세츠 의료보험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맞는 맞춤형 의료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의료보험도 인상을 대체하는 보조플랜

Accident, Disability, Active Care
사고시 의료보험과 무관한 혜택
개인사업자를 위한 인컴 프로텍션 플랜
암, 심장병, 뇌졸중 보험

mlee@MyInsuranceMA.com



Michael Lee
National Fire Under License No. 126827
Massachusetts License No. 233482
Licenses in Health, Life,
Sales & Service, FL,
Property & Casualty(In process)

Health/Life/Disability/ Medicare/
Disability Long Term Care/
Retirement IRAs Insurance Broker

Health Crossroads/MA/USDA
Approved Broker

MA, 모든 영도(영도)의 캐슬러 기능:
NOR, PA, NY, OH, MI, WA, IL,
IN, OH, PA, NY, OH, MI, WA, IL, IN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는 플랜

모기지 프로텍션 플랜
학자금 저축 플랜
무자상 없어 안전한 연금플랜
Express Term Life
Universal/Whole Life

978.314.8818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Shell Yu
781.526.2416



OT Kim
617.620.8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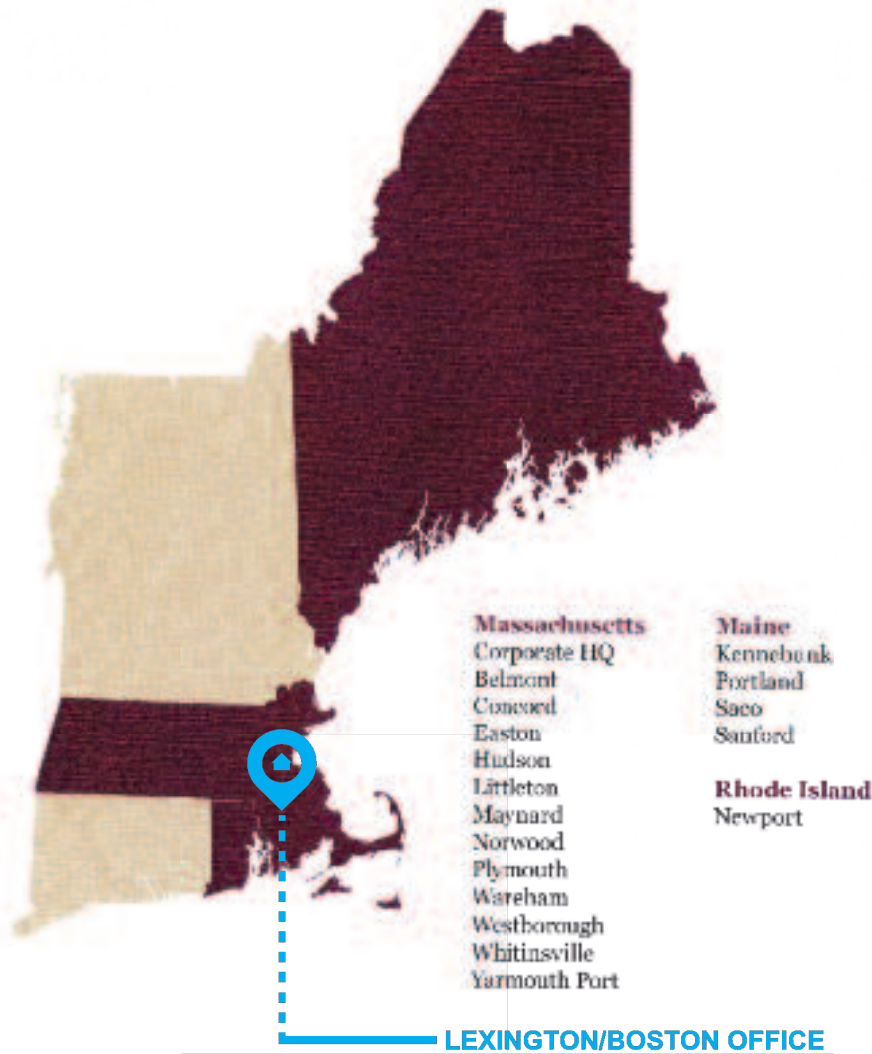
Gina Choi
978.866.3248



AI Magurn
508.733.2949



OFFICE LOCATIONS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Angela Eleazar
617.319.6657



Vicky Xiao
617.480.6362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NFL 플레이오프 진출 예상되는 상위 4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14주차 경기를 앞두고 있는 NFL은 어느덧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각 팀 별로 4경기씩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총력전, 혹은 플레이오프를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아직 정규시즌이 끝나려면 4주가 더 있어야 하지만, 당장 오늘 플레이오프가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 컨퍼런스별 상위 시드 팀들을 살펴보자.

AFC 1번 시드: Oakland Raiders (10-2)

AFC 플레이오프 1번 시드가 유력한 레이더스는 최근 몇 년 간 봐왔던 레이더스가 아니다. 올해의 레이더스는 과거 80년대의 영광을 재현하기라도 하듯 무서운 기세로 질주 중이다. 2003년 이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조차 못하고 지구 하위권에 머물렀던 레이더스는 올해 AFC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올라섰다.

지난 주 빌스와 경기의 결과는 올해 레이더스의 강력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24대9로 지고 있던 레이더스는 3쿼터와 4쿼터에 1점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내리 29점을 득점하며 결국 24대38로 경기를 승리했다.

레이더스의 쿼터백 데릭 카는 유력한 MVP 후보다. 떠오르는 스타인 카릴 맥은 올해의 수비 선수로 뽑힐 가능

성이 높다. 공수 양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레이더스는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AFC 2번 시드: New England Patriots (10-2)

패트리어츠는 레이더스와 승패가 같지만 타이 브레이커 룰에 의해 2번 시드를 받게 된다. 14년 연속으로 10승 이상을 기록한 패트리어츠는 쿼터백 탐 브래디와 빌 벨리치 감독이 함께 했을 때 2002년 이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적이 없다. 매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매년 강력한 수퍼볼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패트리어츠다.

올해도 패트리어츠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선호하는 수퍼볼 우승 후보다. 다만 패트리어츠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타이트 엔드 랍 그롱코스키가 등 수술로 올해 시즌을 마감했고, 와이드 리시버 대니 아멘돌라가 발목 부상으로 플레이오프에 복귀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NFC 1번 시드: Dallas Cowboys (11-1)

현재 NFC의 상황은 카우보이스와 그의 팀들이라고 불릴 만큼 카우보이스의 독주가 절대적이다. 현재 NFL 최다승인 11승이 말해주듯이 카우보이스는 적어도 정규시즌에서는 적수가 없어 보인다.



플레이오프 승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카우보이스는 NFC 1번 시드가 유력하다

카우보이스의 스타팅 쿼터백인 토니 로모가 시즌 직전에 부상을 당했을 때만 하더라도 카우보이스의 앞날은 불투명해 보였다. 그러나 전혀 루키 같지 않은 루키 듀오 닥 프리스캣(쿼터백)과 에즈키엘 엘리엇(러닝백)의 눈부신 활약으로 카우보이스는 NFL 최고의 팀이 되었다.

루키 듀오의 활약과 단단한 오픈시브 라인을 바탕으로 카우보이스는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다. 그

러나 플레이오프 경기 경험이 전혀 없는 프리스캣과 엘리엇이 카우보이스를 수퍼볼까지 이끌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NFC 2번 시드: Seattle Seahawks (8-3-1)

불안불안 하계, 혹은 아슬아슬하게 경기를 풀어가면서도 NFC 2번 시드가 지 노리게 된 시호크스다. 시호크스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명장 피트 캐롤 감독

의 공이 크다. 주전 쿼터백이 무릎 부상을 당하고 팀 내외의 각종 이슈 등 악조건 속에서도 캐롤 감독은 경기에서 승리했다.

러셀 윌슨이 이제는 부상에서 완치되어 예전 기량을 되찾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윌슨은 특히 1월에 강한 쿼터백으로 불린다. 윌슨을 비롯한 주전 선수들이 건강을 유지한다면 시호크스도 다시 한번 수퍼볼을 바라볼 수 있는 팀이다. jsi@bostonkorea.com

라리가 가장 많은 4개 팀 16강 진출...빅 리그 강세 뚜렷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2016-17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빅 리그의 강세는 여전했고 그중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대회에 참가한 4개 팀이 모두 조별예선을 통과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8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프리메라리가의 힘이었다. 프리메라리가는 현재 UEFA의 리그 랭킹에서 94.141점으로 2위 독일 분데스리가(73.355점)에 월등하게 앞서는 선두 리그다. 최근 3년 동안 프리메라리가 팀들이 챔피언스리그(레알 마드리드 2회, 바르셀로나 1회)와 유로파리그(세비야 3회) 정상을 놓친 적이 없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에서도 프리메라리가의 강세는 이어졌다.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는 비록 조 2위에 그쳤지만 3승 3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16강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시즌 준우승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독일의 강호' 바이에른 뮌헨을 제치고 조 1위를 차지했다.

바르셀로나는 조별예선에서만 10골을 터뜨린 리오넬 메시를 앞세워 조 1위에 올랐고 지난 3년 동안 유로파리그를 평정했던 세비야는 16강에 진출,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게 됐다.

프리메라리가에 이어 분데스리가(도르트

문트, 레버쿠젠, 바이에른 뮌헨)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레스터)는 각 3개팀씩 16강에 올랐다.

특히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는 조별예선에서만 21골을 기록, 역대 조별예선 최다 득점 기록을 썼다. 종전 기록은 20골로 2013-14 시즌 레알 마드리드, 2011-12 시즌 바르셀로나, 1998-1999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기록했었다.

도르트문트가 막강 화력으로 16강에 올랐다면 레스터시티는 단단한 수비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팀 자격으로 구단 사상 처음으로 대회에 나선 레스터는 지난 5라운드까지 단 1골만 내주면서 4승 1무를 기록, 조기에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포르투와의 최종 6차전에서 수비 쪽에 그동안 경기에서 나서지 않았던 선수들을 내보내 0-5로 완패했지만 조 1위 자리는 변함이 없었다.

빅 3로 불리는 리그 외에도 유럽 상위 리그 팀들도 저력을 발휘했다. 리그 랭킹 4위인 이탈리아 세리에A를 대표해 나선 유벤투스와 나폴리는 모두 조 1위를 차지했다. 랭킹 5위 프랑스 리그1의 파리 생제르망과 AS 모나코는 어렵지 않게 16강에 올랐다. 리그 랭킹 7위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의 FC포르투와 벤피카도 조별예선을 통과했다.

큰 이변 없이 강팀들이 이름을 올린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 추첨은 12일 열린다. 토너먼트로 펼쳐지는 16강전은 조 1위 팀과 2위 팀이 격돌한다. 하지만 조별예선에서 같은 조였거나 같은 리그의 팀끼리는 만나지 않는다. 16강 1차전은 2월 15~16일, 22~23일에 2차전은 3월 8~9일, 15~16일에 펼쳐진다.

한편 4팀씩 8개 조로 나뉘어 홈 앤 어웨이로 6경기씩 치른 조별예선에서는 2위까지 16강 진출 자격을 얻었고 3위는 챔피언스리그보다 한 단계 낮은 UEFA 유로파리그 32강전에 나선다.

◆2016-17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팀

△1위=아스널, 레스터 시티(이상 잉글랜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이상 스페인), 나폴리, 유벤투스(이상 이탈리아), AS 모나코(프랑스), 도르트문트(독일)

△2위=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세비야, 레알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레버쿠젠, 바이에른 뮌헨(이상 독일), 파리 생제르망(프랑스), 벤피카, 포르투(이상 포르투갈)

dyk0609@news1.kr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8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도르트문트와의 2016-17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P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HAPPY

해피돌상

고급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고품격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고객을 더치는 최첨단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류와 천기, 골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영주권 소지자에 한함.
T. 617-869-1698

세탁소에서 일할 분 구함

렉시톤 소재 세탁소
클리너, 카운터 (풀/파트 타임)
* 영어 가능자 우대
* 주급 협상 가능

연락처: 617-319-4134

재택 간호인 구함

한국어와 영어 가능한 재택 간호인 (HHA/CNA/nursing student) 으로 웨슬리에 거주하시는 박인순 할머니 돌봐주실 분 구함.

모집조건:
- 연장자 케어 경험있는 분.
- 본인 소유차로 의료 예약에 라이드 가능한 분.
- 한국음식 요리 가능한 분.

좋은 보수와 더불어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

관심있으신 분은 로즈 앤(Rose Anne)에게 전화: 617-840-2123 로 연락 주십시오.
* 이력서 준비해 주십시오.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세탁소 프레스 하실 분(파트/풀 타임)
카운터 보실 분(파트/풀 타임)
T. 617-955-793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4989 부동산 매각하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KUKKIWON USA TAEKWONDO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제청	617-536-7469
날씨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하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C)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미인민회	339-298-7187
세탁인민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민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약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2520
메리맥 교회	401-821-2311
목양교회	978-806-1363
무지개교회	617-223-1690
밀알한인교회	207-774-1617
렉싱턴 풍성한교회	978-244-0691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953-0856
보스톤 국제교회	617-864-5948
보스톤 감리교회	617-459-6479
보스톤 사랑의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617-285-8870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978-844-2404
보스톤 새로남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생명의교회	617-947-6765
보스톤서부장로교회	보스톤 새생명교회
보스톤 성결교회	978-777-1800
보스톤 한울교회	보스톤 생명의교회
보스톤 소망교회	781-894-3958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8233
보스톤안식교회	781-396-1004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686-5526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978-758-4541
보스톤 장로교회	781-279-3270
보스톤 제일교회	781-933-7044
보스톤 주님의교회	781-393-0004
보스톤 중앙교회	508-435-4579
보스톤 침례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 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617-833-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타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교회	918-876-2815
위마뉴엘 연합교회	978-53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간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건국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Hana Rehab Clinic	508-584-5860
보스턴컨설팅카운슬링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어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골방	617-437-0378
송현미미용실	508-734-0446
순옥위너미용실	508-737-8636
신현칠미용실	617-947-6293
에이비미용실(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275-3109
이경혜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은미용실(EXT.125)	603-770-3491
정은숙미용실	617-236-8600
조현경미용실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미용실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미용실	603-845-2138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9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9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뱅크(이재용)	617-421-2282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우진심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함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턴컨설팅카운슬링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주 치과	860-623-2601
키치소아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닉스	617-871-1482
켄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환치과	978-459-0594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고정치과	

만병의 근원 '동맥경화', 당신의 혈관은 막힘없이 통하고 있나요?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 "조금이라도 심한 가슴 통증 느꼈다면 지체없이 전문의와 상담해야"

이번 주 휴람의료정보는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휴람 네트워크 병원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 나의 혈관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은 사슴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冠狀動脈)이라 하고, 이 관상동맥은 쉬지 않고 일하는 심장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지면서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는 개인차가 매우 크므로 건강한 심장을 위한 생활습관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장은 1분에 60~80회 정도 반복되는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뇌와 전신에 필요한 혈액과 산소를 보내주고, 폐순환을 통해 깨끗한 혈액을 공급 받게 해주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이다. 관상동맥은 심장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혈관으로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겨 갑자기 막히게 되면 심장근육으로 혈액의 흐름이 부족해지거나 중단되어 심장근육이 손상을 받는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을 유발하게 된다.

◎ 동맥경화는 서서히 진행중 : 동맥경화는 출생 직후부터 시작, 진행하여 40대 이상이 되면 여러 혈관에 동맥경화반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동맥경화는 핏 속에 기름이 증가하면서 혈관 벽에 조금씩 쌓여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혈관 내부가 좁아져 기름이 쌓인 곳

에 핏덩어리(혈전)가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혈관 내강이 좁아지는 경우를 동맥경화라고 한다.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와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동맥경화반의 진행과 파열을 촉진하는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등의 위험인자만이 알려져 있다.

◎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관계 : 운동할 때 갑작스런 가슴통증을 느끼는 경우를 '안정형 협심증' 이라고 한다. 동맥경화에 의해 관상동맥 직경이 좁아져서 심장으로부터 혈액공급이 부족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동맥경화의 진행 정도와 관련 없이 위험인자의 작용으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고 그 부위에서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히게 되면 안정 시에도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고 한다. 급성 심근경색증과 불안정 협심증이 여기에 속한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혈전에 의해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힌 채 30분 이상 경과되어 막힌 혈관 영역의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것을 말한다. 불안정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막혔다가 20분 이내에 녹아 피가 통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불안정 협심증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

◎ 잠시라도 심한 가슴통증을 느꼈다면? : 협심증에 의한 가슴통증은 주로 운동 시에 발생하고 가슴 좌측 또는 중앙부에서 빠르거나 통증을 느끼며 턱이나 왼팔을 따라 방사통이 생기기도

한다. 초기에는 운동량이 많아야 가슴 통증이 발생하지만 점차 적은 운동 시에도 가슴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대개 움직이지 않고 안정하면 수분 내에 자연 소실되며, 니트로글리세린(혈관 확장제의 일종)을 혀 밑에 넣거나 뿌려주면 빨리 회복된다. 당뇨병 환자나 고령인 경우 신경이 둔해져서 초기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중증으로 진행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 조기검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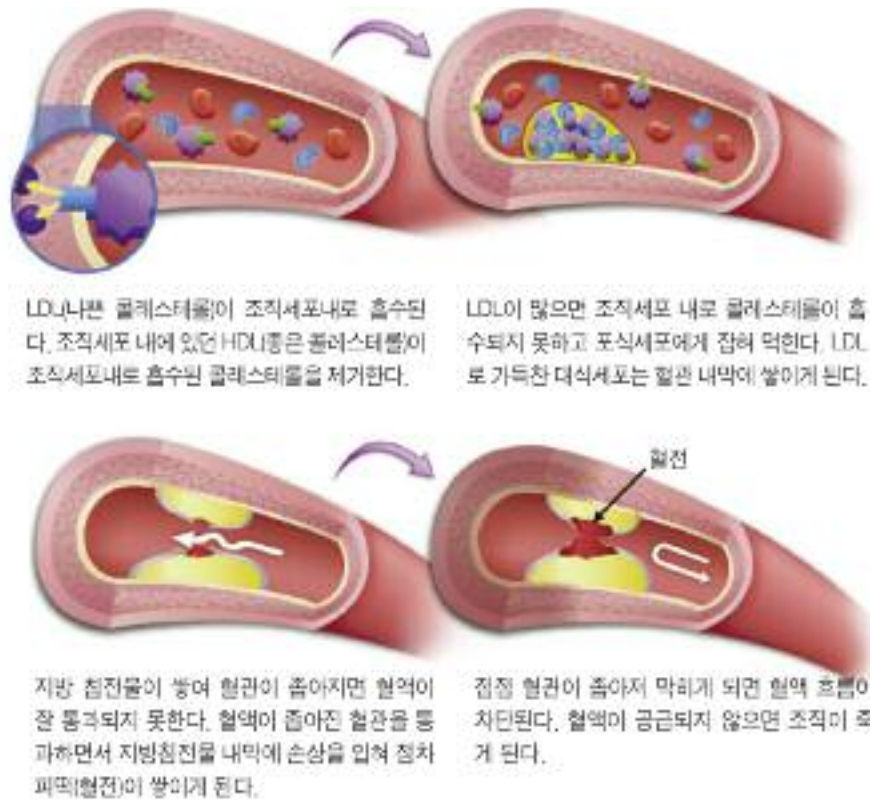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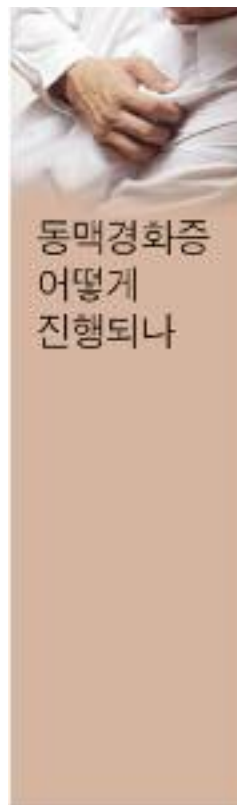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가슴통증은 앉았거나 자다가도 갑자기 발생하며, 30분 이상 지속되고 극심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응급실로 오게 되지만 고령의 환자 중에는 진통제나 우황청심환 등을 복용하고 참다가 결국 심

부전에 빠져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만일 잠시라도 심한 가슴통증을 느꼈다면 지체 없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계란? : 작년 미국 정부가 발표한 '미국인을 위한 식이 가이드라인 2015~2020년' 은 전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0년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던 내용 중 한 가지(콜레스테롤 섭취 하루 300mg 이내 권고)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인이 하루에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300mg을 넘지 않고 여러 연구를 통해 콜레스테롤 섭취량과 심혈관 질환 발생률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심장협회(AHA)도 2013년 "음식을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콜레스테롤 함유 대표 식품은 계란 · 유제품 · 육류 등이다. 그동안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기피했다면, 하루에 계란 1~2개 정도까지는 먹어도 좋다.

◎ 동맥경화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음식 섭취 효과 : 동맥경화에 좋은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 홍삼, 토마토, 표고버섯, 현미, 다시마 등이 있다.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암, 당뇨, 혈관 질환을 개선시키고, 홍삼은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3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과로,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압통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목 / 허리 / 골반 통풍,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재정/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풍 및 척추측만 교정



개인기밀 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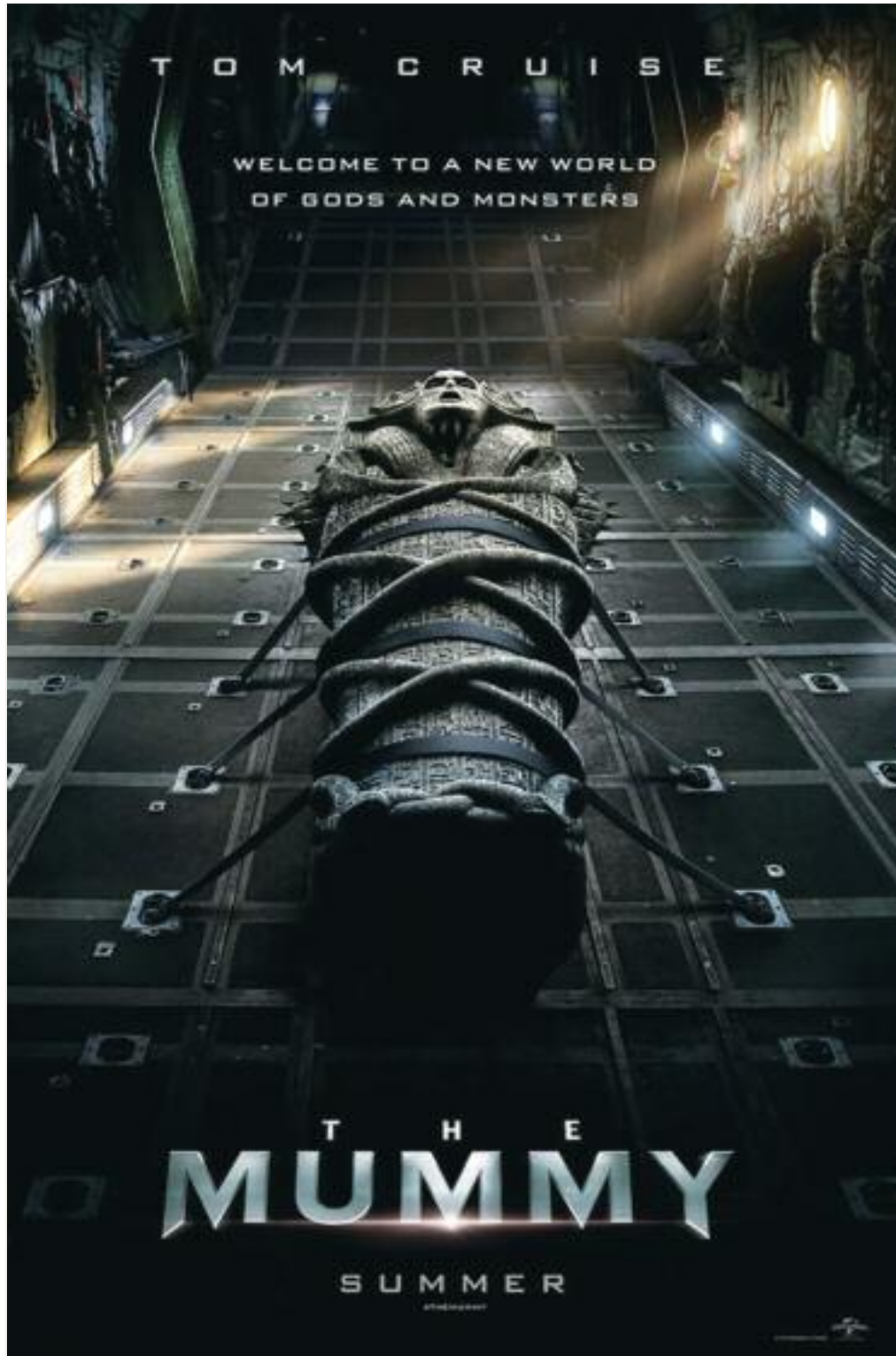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척추 평가
(20000~3500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O), 후쿠에이, 학교/유학생/이동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pm
일(Sun) : Closed



'공조' 현빈X유해진, 기대되는 남북 형사 케미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영화 '공조'가 현빈과 유해진, 매력적인 두 배우의 새로운 남남 케미스트리로 기대감을 뜨겁게 고조시킨다.

내년 1월 개봉하는 '공조'는 남한으로 숨어든 북한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남북 최초의 공조수사가 시작되고,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는 특수부대 북한형사와 임무를 막아야만 하는 생계형 남한형사의 예측할 수 없는 팀플레이를 그린 영화다.

'공조'는 도시적이고 로맨틱한 매력으로 여심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표 스타 현빈과 '럭키'로 코믹 연기의 진수를 선보인 대세 배우 유해진의 첫 번째 만남으로 색다른 시너지를 예고한다.

생애 첫 액션 연기에 도전, 이전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남성적이고 강렬한 매력을 선보일 배우 현빈과 소탈하면서도 사람 냄새 나는 형사로 돌아온 배우 유해진의 극과 극 상반된

매력은 적재적소에 웃음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

특히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앞만 보고 직진하는 북한형사 현빈과 그를 막기 위해 15년 형사 생활 노하우를 총동원하는 남한형사 유해진의 모습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유쾌한 팀플레이로 기대를 높인다.

남성적인 매력 속 뜨거운 인간미를 지닌 북한형사를 완벽 소화한 현빈과 특유의 맛깔 나는 연기로 능청스러운 남한형사를 생동감 있게 완성해 낸 유해진의 연기 앙상블은 극에 풍성함을 더한다.

하지원, 임수정, 한지민 등 최고의 여배우들과 호흡을 맞춘 바 있는 배우 현빈과 조승우, 강동원, 유아인, 김윤석까지 남자 배우들과 남다른 케미를 보여준 유해진의 첫 만남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환상적 브로맨스로 2017년 새해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된다.

aluem_chang@news1.kr



'도깨비' 이동욱X공유, 저승 브로맨스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도깨비' 이동욱, 공유가 평범한 마트를 '꽃길'로 만들었다.

tvN 금토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 제작진은 8일 마트카트를 사이에 두고 똑바로 마주선 채 서로를 주시하고 있는 이동욱과 공유의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동욱과 공유는 카트 안에 이것저것 담아 넣으며 쇼핑을 하다 멈춰서서 강렬한 눈빛 스파크를 튀기고 있는 것.

한 지붕 아래 동거 중인 두 남신(男神)이 또 다시 아웅다웅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동욱과 공유는 언제 어디서나 발산되는, 격이 다른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상태. 두 사람은 184cm에 달하는 월등한 기력지와 훈훈한 외모, 이를 돋보이게 하는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패션 스타일로 눈길을 끈다.

reddgreen35@news1.kr



톰 크루즈 '미이라' 내년 6월8일 개봉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전세계 최고의 액션 어드벤처 블록버스터 영화 '미이라'가 10년 만에 리부트되어 톰 크루즈 주연의 새로운 '미이라'로 돌아온다.

7일 수입 및 배급사 UPI코리아에 따르면 '미이라'는 오는 2017년 6월8일 전세계 동시 개봉을 확정지었다. '미이라'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 신들과 괴물들의 세상을 경험한 닉(톰 크루즈 분)이 1000년 만에 부활한 미이라 아마넬트 공주(소피아 부텔라 분)와 맞서게 되면서 벌어지는 액션 어드벤처 블록버스터.

이번에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1000년 동안 갇혀 있던 고대 아마넬트 공주의 강렬한 비주얼의 등장으로, 판타지적 상상력에 대한 기대와 스릴감을 동시에 선사한다. 여기에 "신들과 괴물들의 세상이 시작된다"는 카피가 더해져 신들과 괴물들의 세상에서 펼쳐지는 압도적인 스케일과 대체불가 톰 크루즈의 화려한 액션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킨다.

이번에 공개된 1차 예고편은 상공에서 펼쳐지는 고공 액션을 시작으로, 미이라의 존재를 파헤치기 위한 수중 액션, 광활한 사막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거대한 스케일의 스펙터클한 액션까지,

톰 크루즈 영화 사상 역대급 스케일과 액션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빠얏긴 걸 되찾으러 왔소"라는 대사과 함께 등장하는 아마넬트 공주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사막인 아닌 런던에 등장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이번 시리즈의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을 배가시키며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 '미이라'의 탄생을 예고한다.

'미이라'는 톰 크루즈, 소피아 부텔라, 러셀 크로우 등 특급 캐스팅뿐만 아니라 '옛지 오브 투모로우', '미션 임파서블 3'에 이은 톰 크루즈와 알렉스 커츠만 감독의 세 번째 조우로 기대를 더한다. '분노의 질주'시리즈, '원티드' 크리스 모건이 제작을 맡았다. 여기에 '닥터 스트레인지' 존 스파이츠,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옛지 오브 투모로우' 크리스토퍼 맥쿼리 등의 각본가까지 뭉쳐 상상을 초월하는 액션 뿐만 아니라 탄탄한 스토리까지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미이라'는 유니버설 픽처스의 프랜차이즈 '다크 유니버스'의 세계관을 선보일 첫 번째 작품이다. 2017년 '미이라'를 시작으로, 유니버설 몬스터 시리즈들이 차례로 제작되어 개봉될 예정이다.

aluem_chang@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11월 28일 ~ 2016년 12월 4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8.5%
2	SBS	월화드라마(낭만닥터김사부)	20.3%
3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19.0%
4	SBS	드라마스페셜(푸른바다의전설)	17.9%
5	KBS1	KBS9시뉴스	15.2%
6	MBC	일밤1부(미스터리음악쇼복면가왕)	14.3%
7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14.1%
8	S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14.0%
9	SBS	K팝스타더라스트찬스	13.5%
10	KBS2	해피선데이	13.2%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	SBS	TV소셜(저 하늘의 태양이)
3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4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5	MBC	주말특별기획(아버님제가모실게요)
6	MBC	일일연속극(행복을 주는 사람)
7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8	MBC	일일연속극(다시시작해)
9	S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10	MBC	일일특별기획(황금주머니)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이 바보야	정승환
02	BERMUDA TRIANGLE	TWICE
03	TT	TWICE
04	나비잠 (Sweet Dream)	김희철X민경훈
05	Decalcomanie (데칼코마니)	마마무
06	꽃길 (Prod. By ZICO)	세정 (구구단)
07	불장난	BLACKPINK
08	우주를 즐겨	볼빨간사춘기
09	나쁜X (BAD YEAR)	San E
10	11:11	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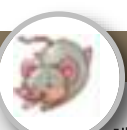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3		1	5	8	9		
2	8		4			5	
5			6				
7				5		6	
		4				8	
		5		9			1
					1		4
	1				7		8 6
		7	3		5	1	9

12월 11일 - 12월 17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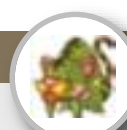
쥐띠 | 먼저 깃발을 꽂는 자가

●운수: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어떤 일이든 남보다 빨리 시작 해서 먼저 깃발을 꽂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전:공적 으로나 사적으로나 나가야 할 돈이 늘어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게 되니 기 분 좋게 지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선 믿어주는 마음 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서로가 편안해집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2, 16일 길일. 14, 17일 주의.



소띠 | 미루던 일을 해보도록

●운수: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나 미루던 일을 해보도록 하 세요. 평소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서로에 게 도움이 되는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리던 돈도 무난하게 들어올 것입니 다. ●애정:힘들 때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배우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 니다. 부부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3, 17일 길일. 12, 1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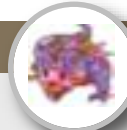
범띠 | 모든 일에는 순서가

●운수:급하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순 서가 있는 것이니 때를 기다리세요. ●금전:최상의 경우만 생각하 지 말고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미리 대비해두면 도리어 금전적으로 유리하게 풀릴 것입니다. ●애정: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관심을 보 여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것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1, 14일 길일. 13, 1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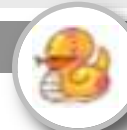
토끼띠 |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운수:내가 아는 가족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까 다 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볼 필 요가 있습니다. ●금전: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과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분위기에 휩쓸리면 주머니가 비게 됩니다. ●애정: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 다. 형식적인 사과는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1, 15일 길일. 14, 1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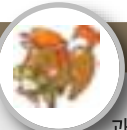
용띠 |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운수:이러저런 걱정으로 망설이는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 서 해보세요.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금전:매 매나 계약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지금의 이 기회를 잘 활 용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부부가 화목하니 가정은 온기가 됩니다. 사귀고 있는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6, 17일 길일. 12, 1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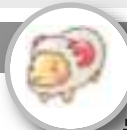
뱀띠 | 자신의 삶에 약이

●운수:당장 듣기 좋은 사탕발림 같은 말에 따라가지 마세 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쓴 말에 귀를 기울여야 자신의 삶에 약 이 되어줍니다. ●금전:길흉이 반반으로 뒤섞여서 오는 운세입니다. 들어오는 돈 과 나가는 돈이 비슷합니다. ●애정:사랑보다 정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아니 라는 생각이 되면 더 정이 듣기 전에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4, 17일 길일. 12, 16일 주의.



말띠 |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운수: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확신만 가지고는 부족한 결 과가 나올 것입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금전:적당한 선 에서 만족하고 넘어가세요. 과한 욕심을 내다가는 그나마 들어올 이득도 기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애정: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될 수 있습 니다. 만나게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길게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3, 15일 길일. 12, 17일 주의.



양띠 | 희비가 교차하는

●운수: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희비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누구 때문에는 기쁘고 웃을 일이 생기고 누구 때문에는 마음이 아 프거나 슬픈 일이 있겠습니다. ●금전:평소보다 소비가 늘어납니다. 특히 순간적 인 기분이나 체면유지를 위해 지출하기 쉽습니다. ●애정:이성의 유혹이 따르는 때 입니다. 차신을 잘하지 않으면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1, 14일 길일. 12, 1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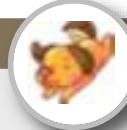
원숭이띠 | 여러모로 얻는 것이

●운수: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 세요. 대인관계로 인해서 여러모로 얻는 것이 클 것입니다. ●금전 :큰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척척 풀리고 금전적인 이익도 따라올 것입니다. ●애정:모든 것이 편안해지니 상대에게도 너그 럽게 대하게 됩니다. 서로간의 대화도 잘 통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2, 17일 길일. 11, 1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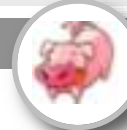
닭띠 |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운수: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서투른 것이 문제가 됩니다. 소 외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대인관계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 다. ●금전:현재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애정:한 번 굳게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야 하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3, 16일 길일. 11, 14일 주의.



개띠 |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운수: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려면 가급적이면 일찍 귀가 하세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철저한 금전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급한 것부터 처리해 야 할 것입니다. ●애정: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들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1, 14일 길일. 12, 15일 주의.



돼지띠 | 생각했던 것보다

●운수:오래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 고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금전:다시 한 번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의 힘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정: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세요. 진실한 대 화를 나누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1, 15일 길일. 12, 13일 주의.

'푸른 바다의 전설' 조정석, 남자인어로 등장

(서울=연합뉴스) 권수빈 기자 = 조정석이 남자 인어로 '푸른 바다의 전설'에 등장했다.

7일 밤 10시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극본 박지은/연출 진혁) 7회에서는 심청(전지현 분)이 바다에 뛰어들려는 줄 알고 말리는 구급대원 유정훈(조정석 분)이 등장했다.

심청과 정훈은 눈을 맞췄다가 뭔가 알게 됐다. 알고보니 정훈은 남자 인어였다. 정훈은 "서울 한복판에서 인어를 만날 줄이야"라고 했고, 심청은 "나도 서울에 인어는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놀랐어"라고 했다.

심청이 배가 고프고 돈도 없자고 하자 정훈은 인어의 눈물인 진주가 곧 돈이라고 말해줬다. 정훈은 눈물을 꼭 모아야 한다고 하면서 진주의 알 굵기와 색에 따라 값이 다르다고 설명해줬다.

심청이 남자를 따라 물에 왔다고 하자 정훈은 팔짱 끼었다. 그는 "너는 시한부다. 인어가 물으로 올라오는 순간 심장이 굳기 시작해. 계속 숨을 쉬는 방법은 단 하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네 심장이 뜨겁게 뛰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라고 말했다.

정훈은 심청이 사랑을 이루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는 "인간 남자들은 다 질투의 화신들이야. 사랑

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허준재(이민호 분)의 질투 유발을 돕기로 했다. 정훈과 심청은 준재 앞에서 다정한 척 하면서 준재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ppbn@news1.kr



'무한도전', 명예신타는 누구? 흥미진진 산타 아카데미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무한도전' 멤버들 중 명예산타를 뽑는 '산타 아카데미' 다음 이야기가 공개된다.

멤버들은 최근 진행된 MBC '무한도전' 녹화에서 연말을 맞아 산타 아카데미에 입소했다.

산타를 선발하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는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읽는 능력 테스트다. 지난 방송에서 사랑, 쫓겨, 우리 엄마 등 예상치 못한 답으로 멤버들을 당황케 한 '어린이 단어 퀴즈'에 이어 '어린이 그림 퀴즈'가 공개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보고 무엇을 그린건지 맞혀야 하는 멤버들은 아이들의 순수한 그림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는데, 과연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동심을 가장 잘 읽

을 수 있는 멤버는 누구일지 주목된다.

두 번째 테스트는 선물 포장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지나가는 선물을 릴레이로 포장해야 한다. 어떤 물건이 나오더라도 포장하겠다는 각오로 준비하던 멤버들도 예상을 빚겨가는 황당한 선물이 등장해 난항을 겪었다.

이어진 민첩성 테스트에서는 선물 창고 서터가 닫히기 전에 원하는 선물을 꺼내오는 과정에서 멤버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달려 나가며 뜻밖의 웃음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선물 배달을 위한 지붕 오르기와 눈썰매 레이스 등을 통해 선발된 '무한도전' 명예산타는 누구일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aluem_chang@news1.kr

'라스' 서지혜 "대학 인기투표, 외모 1등 · 성격포함 3등"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배우 서지혜가 성균관대 연기에 술학과 재학 시절 인기투표 결과를 언급했다.

서지혜는 7일 밤 11시10분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 504회에서 "학교 남자 선배분들이 재미 삼아 과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뽑은 거다. 얼굴 따로, 성격 따로 했었나 보더라. 얼굴은 1등이었는데 성격을 포함한 건 3등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MC들은 "성격이 거의 7-8등 수준이었던 소리 아니냐"고 거들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라디오스타'는 서지혜, 토니안, 문희준, 서유리, 아이린이 출연했다. hjk0706@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량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adisacti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eunautobody@yahoo.com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RR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풍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띠 요리사', 먹방 넘을 쿡방 드라마 탄생할까

(서울=뉴스스타) 강희정 기자 = 예능 트렌드로 자리잡은 '먹방', '쿡방'의 기운은 드라마에도 미쳤다. '식사를 합시다'는 대놓고 '먹방'을 내세운 드라마였고, 호평도 받았다. 이번엔 '고양이띠 요리사'가 '쿡방'을 드라마로 옮겨온다.

'고양이띠 요리사'는 베트남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인 셰프 여문준(이기우 분)의 일과 사랑을 담은 레시피 로맨스 드라마다. 이국적 풍광과 다양한 식문화를 지닌 베트남을 배경으로 미각을 깨우는 감각적인 영상미를 선보일 계획이다. 그간 '한식대첩', '오늘 뭐 먹지', '원나잇 푸드 트립' 등 다양한 푸드 프로그램을 선보였던 올리브TV가 '레시피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다.

촬영은 베트남 올 로케이션으로 진행됐다. 극 중 베트남어로 이뤄진 대사도 많다. 이에 대해 이기우는 "베트남어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현지 촬영에 애로사항은 있었다. 미리 대사 녹음 파일을 받아서 연습을 하고 갔다"고 말했다.

김 PD는 "이국적이지만 친숙한 식문화를 지닌 베트남은 최근 아시아 미각 트렌드를 이끄는 대표적인 나라다. 베트남 음식을 직접 먹고 만지는 듯한 영상은 물론 이국적인 배경에서 펼쳐지는 '묘'한 남녀의 레시피 로맨스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고양이띠 요리사'는 오는 21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 화요일 밤 9시 방송된다. hjk0706@news1.kr



티보플레이 11월 4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2	K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3	MBC	불어라 미풍아
4	SBS	우리 갑순이
5	MBC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6	MBC	행복을 주는 사람
7	MBC	좋은사람
8	MBC	다시시작해
9	SBS	사랑이 오네요
10	MBC	황금주머니

티보플레이 11월 4째주 신규 방송

1	MBC	행복을 주는 사람
2	CJ	고양이띠 요리사
3	SBS	동네의 사생활

티보플레이 11월 4째주 최신 영화

'동네의 사생활' 인문학 토크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서울=뉴스스타) 권수빈 기자 = '동네의 사생활' 출연진이 쉽고 재밌는 인문학 이야기를 전한다.

'동네의 사생활'은 국내 여행지에 얽힌 역사나 숨은 이야기에 대해 찾아내보는 프로그램이다. 늘 지나다니는 익숙하고 흔한 동네나 유명한 장소에 묻혀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한 곳의 숨은 이야기를 파헤쳐본다.

연출자 허양재 PD는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계기에 대해 "유럽에 가면 오래된 성당이나 미술관, 건축물 등을 보지 않나. 거기에 담긴 이야기들을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다니고 역사 같은 걸 보게 된다.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없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인문학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만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허 PD는 이에 대해 "인문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건 아니고 여행지에 담긴 재밌는 이야기를 재밌게 전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ppbn@news1.kr

인문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을 갖는 것
그런 게 인문학적 태도가 아닌가.

질문이다

TBO PLAY

보스톤권각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world, T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대강절에 드리는 조국을 위한 기도

뉴잉글랜드지역 한인교회협의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마태복음 4:16)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셔서, 세계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경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세상을 여전히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시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세상과 역사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마침내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땅에 오셔서 고통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어 어둠의 권세를 온전히 물리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교만과 허영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힘과 권력을 잠시 부여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높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그 주변 사람들은 악한 목자처럼 국민들을 노략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불의를 회개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빛을 비추시사 숨은 것이 드러나며, 감추인 것이 알려지게 하옵소서. 잘못된 권력자들이 두려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권력이 그들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며, 그들의 행악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하소서. 주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주님의 길이 아닌, 화려하고, 자랑하며, 편안한 세상의 길에 익숙해져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때로 눈이 어두워져, 신음하고 힘들어 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이 대강절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큰 상처를 받아 분노와 절망, 불안 가운데에 있을 조국의 국민들과 전 세계의 한인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 오신 밤,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에게 오늘 평화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뉴잉글랜드지역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유경렬 목사 | 부회장: 강덕식 목사 | 총무: 이재호 목사 | 회계: 홍종욱 목사

실행위원:

기독교감리(KMC): 김태환, 김광식 | 미주성결: 이규연, 전석훈 | 미주한인예장(KAPC): 김학수, 김대업
연합감리(UMC): 강명석, 조상연 | 그리스도: 문은호 | 나사렛: 유경렬 | 남침례: 최지원
미국장로(PCUSA): 이영길 | 미주순복음: 김덕기 | 해외한인장로(KPCA): 김영호 | ECC: 이길로

신영의 **세상 스케치**

574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40년 만에 미국에 사는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

"야, 나 OO야!"

"OO야, 나 기억나니?"

"내 얼굴 기억나니?"

"정말, 반갑대!"

"야, 우리 40년 만이야!"

"무지 보고 싶다!"

감동과 감탄의 연발이다. 늘 꿈속에서나 그리던 아련한 빛바랜 추억의 한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40년이 지나서야 만날 수 있었다. 가물가물 거리는 풍경들 사이 바람이 이리저리 흔들어 놓은 기억들 참으로 아련하다. 행복하다는 표현보다 더 깊은 감동이 있었다. 당장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친구이다. 어떻게 변했을까. 뭐하며 지금껏 살아왔을까. 친구를 떠올리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난다. 그 물어두었던 그리워했던 그 시간 만큼이나 세월이 훌쩍 지난 지금, 친구와 나

는 미국의 한 하늘 아래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를 맞는다.

지난 11월의 하루다. 한국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한 동네에 어릴 적 친구가 살고 있는데 한국에 막 다녀온 터라 친구의 비즈니스 공간에 들러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무심결에 이메일을 들여다보다가 모르는 이름을 보며 누구지 싶어 열어보았다. 그런데 보스턴 인근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다며 내 어릴 적 친구가 나를 찾는 다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 준 것이다. 고맙다고 간단하게 인사를 남기고 서둘러 친구에게 전화를 넣었다. 그런데 연결이 되지 않아 카톡으로 연결해 메로를 남겼다.

아쉽게도 그 전화번호는 친구 아들 녀석의 것이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너무나 반가움에 우리 둘은 내일은 못 만날 사람들처럼 쉬지 않고 바쁘게 얘길 나누었다. 한두 시간을 넘게 통화를 했던 기억이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 본 행복이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 깔깔거리며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지

난 10월 한국에 방문했다가 초등학교 몇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한 친구가 내가 미국 보스턴에 살며 글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만났다.

친구는 지금 시카고에 살고 있다. 그런데 94년도에 보스턴에 와서 2여 년을 남편이 유학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포스트닥(Post Doctor)을 마쳤다는 것이다. 지금은 일리노이즈 주립대학 시카고(UIC)에서 교수가 되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친구가 자랑스러웠다. 그것은 가까운 친구 몇이 오래 전 유학생으로 와서 살고 있기에 유학생 와이프로 산 세월을 익히 들어 알기 때문이다. 낯선 타국에서 유학생 남편의 내조가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를 말이다.

친구의 얘기를 들으며 더욱 재밌었던 것은 친구의 남편이 같은 초등학교 선배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도 선배가 된다고 부르기도 한 번 웃었다. 그래서 내 남편도 나이

가 비슷하다고 하니 우리 모두 함께 뭉쳐보자고 말이다. 이렇듯 40년의 세월이 훌쩍 넘었어도 시공간을 초월한 순수함이 서로를 잇게 하는가 싶다. 친구는 두 아들을 두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입학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이제는 서로 왕래하며 살자고 약속을 했다. 친구는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 더욱이 감사했다. 서로 기도해줄 수 있는 친구라 더욱이 그랬다.

비행기를 타고 3시간이면 만날 수 있는 같은 미국 하늘 아래에 친구가 있다는 것이 마냥 든든해졌다. 글을 쓰는 내가 부럽고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나 역시 교수의 아내로 있는 친구가 멋지고 자랑스럽다고 얘길 해주었다. 그리고 두 아들 엄마의 자리와 한 가정의 주부의 역할을 제대로 잘하는 프로인 친구가 자랑스럽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서로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었다. 여전히 맑고 깨끗한 성품을 간직한 친구에게서 어릴 적 어렵풋한 기억에 남은 커다란 눈망울에 등병등병 눈물이 고일 것 같았던 아이가 스쳐 지난다.



한담객설閑談客說: 허영을 허許하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실이 설사 명품을 휘감았던들 고급스럽기는커녕 초라한 줄부 행색"이라고 했다. 명품은 명품인데 오히려 초라하다 했다. 요새 이름을 떨치는 차모라는 남자도 문화부장관을 하고픈 욕심이 있었단다. 역사는 돌고도는 건가? 한국 50년대 말, 자유당 정부시절이다. 임모라는 정치깡패 중간보스가 있었다. 연예계는 그의 손아귀에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 그가 장관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 기가 찬다. '장관이 별것이나. 도장만 꺾꺾 찍으면 그만이다.' 장관자리가 예나 지금이나 별것아닌건가? 아무렴, 그의 욕심이 지나치다. 문정희 시인의 시중 한 구절이다. 다 놓고 싶은 편만한 중년시인에게 오히려 편안하다. 그렇게 읽힌다. 놓고 싶다는 말일게다.

어떻게 하지? 나 그만 부자가 되고 말았네 ...

나 성공하고 말았네 이제 시만 폐업하면 불행 끝 시 대신 진주목걸이 하나만 사서 걸면 오케이 ... 시 파산 선고 (문정희, 성공시대)

"마틸드! 내건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 프랑밖에 나가지 않는...". 모파상의 소설 '목걸이' 마지막 구절이다. 가짜란 말이 통렬한데, 젊은 여인에게 허영만 죄없는 예술은 아니지 싶다. 중년여인은 허영 부릴 수 없다는 말인가? 중년여인의 팽팽한 피부욕심을 허許하라. 어차피 가짜일텐데, 무슨 상관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빌립보서 2:3)

예나 지금이나 여자나 제대로 알아보는 남자는 드물다. 여자나이는 여자가 더 잘 알아본다. 화장化裝을 하니 그런가 그건 모르겠다. 하긴, 요새는 남자도 화장을 하기는 하는 모양이다. 한국화장품이 중국에선 인기가 대단하단다. 서울 강남 성형외과는 문전성시라고도 했다. 모두 예뻐지고 젊어 보이고 싶은 욕망이다. 내가 화장품에 대해 뭘 알겠나만, 한동안 일제日製화장품이 인기였다고 들었다. 남자나이는 남자가 더 잘 알아 보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30년대 이선희란 여기가 있다. 그의 글의 한 토막인데, 도발적이다. 요사이 읽어도 옛적 냄새 풍기지 않는다. 그녀는 구멍난 버선을 버섯이 신고 다녔단다.

'젊은 여인의 허영은 한 개의 죄 없는 예술이다. 그 사람을 마음껏 살찌게 하고 빛나게 하려는 아름다운 욕망이다. 봄바람과 같이 가볍고 오색의 무지개와 같이 찬란한 희망이다. 세상에 점잖다는 선생님을 멋도 모르고 함부로 꾸짖지 마소. 나는 이 허영을 분수없이 넘치게 타고난 가여운 딸이다. 괴로운 존재다.' (조선일보, 5-20-2014)

사치와 허영은 사촌간 인듯 싶다. 최순실이란 중년여인이 신고 입었던 구두와 신발이 명품이라 했다. 신문에서 본 기사의 한 대목이다. "명품이란 건 허영과 사치심을 먹고 사는데 최순

Prime Motor Group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2017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3.5-inch Segment LCD Cluster Display, AM/FM/XM radio

FWD, Automatic, HQ11289




LEASE \$69/mo.	PURCHASE \$15,631	FINANCE 0.9% APR
--------------------------	-----------------------------	----------------------------

2016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Advanced safety technology with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FWD, Manual, HQ11603




LEASE \$89/mo.	PURCHASE \$13,290	FINANCE 0% APR
--------------------------	-----------------------------	--------------------------

2016 Hyundai Accent GLS Sedan

This vehicle features:
Bluetooth, Heated Mirrors, Sirius XM Radio, Power Windows/Locks, Remote Keyless Entry

FWD, Automatic, HQ11525



LEASE \$119/mo.	PURCHASE \$12,798	FINANCE 0% APR
---------------------------	-----------------------------	--------------------------

2017 Genesis G80 3.8

This vehicle features:
Premium Pkg, Blindspot detection, Rear cross traffic alert, HTRAC AWD

AWD, Automatic, HQ11680




LEASE \$419/mo.	PURCHASE \$45,500	FINANCE 1.9%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port

This vehicle features: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Hands Free, Fog Lights

AWD, Automatic, HQ11629



LEASE \$129/mo.	PURCHASE \$23,527	FINANCE 0.9% APR
---------------------------	-----------------------------	----------------------------

2017 Hyundai Tucson SE

This vehicle features:
Drivers Blind Spot Mirror, 5 inch Color Touchscreen Audio, Rearview camera

FWD, Automatic, HQ11289




LEASE \$175/mo.	PURCHASE \$20,248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onata SE

This vehicle features:
Rearview Camera, 16" Alloy Wheels, Bluetooth, Sirius XM

FWD, Automatic, HQ11830



LEASE \$129/mo.	PURCHASE \$18,197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E

This vehicle features: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Hands Free, Fog Lights

AWD, Automatic, HQ11442



LEASE \$189/mo.	PURCHASE \$29,003	FINANCE 0% APR
---------------------------	-----------------------------	--------------------------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을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6.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9% APR for 60 months is 60 monthly payments of \$17.48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10/31/2016."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21. 신앙과 축제 (2)

땀 움막 정화의식(Sweat Lodge Ceremony)
땀 움막 정화의식이란 반구형의 돔(dome) 지붕으로 만들어진 움막(Sweat Lodge)속에서 불에 달구어진 돌에 물을 끼얹어 수증기를 발생시켜 사우나방과 같은 고온 다습한 실내 공기를 만들고 그 속에서 땀을 흘리며 치루는 정화의식을 뜻한다. 땀 움막 정화의식은 거의 모든 인디언 부족들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데, 큰일을 치루기 전에 몸과 정신을 깨끗이 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선 댄스에 참가하여 살을 깨놓는 고행을 하기로 예정된 사람들도 사전에 이 정화의식을 꼭 거쳤으며, 비전 탐구를 떠나기로 한 사람들도 미리 이 의식을 치렀다. 아래 사진은 필자가 방문했던 피놉스코트(Penobscot) 인디언보호구역 내에 있는 한 인디언 집의 뒷마당에 설치해 둔 땀 움막의 뼈대인데 나뭇잎 등으로 지붕을 덮으면 움막이 완성된다.

비전 탐구(Vision Quest)

비전탐구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과정을 뜻한다. 생애의 첫 비전 탐구는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행해지며, 성인이 된 뒤에도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큰 사건에 직면하여 새로운 정신적 능력이 필요할 때에 행해진다. 비전 탐구자는 부족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이나 광야로 혼자 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부족의 신인 정령에게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하여야 할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계시를 구하는 기도에 몰입한다. 며칠간을 걸쳐 기도에 매달리게 되면 탐구자는 일종의 환각상태로 진입하게 되고 이때에 신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 한다. 비전 탐구자는 때때로 선인장에서 만든 천연 환각물질인 피오테(peyote)를 복용하기도 한다.

피오테 의식(Peyote Ceremony)

필자는 2014년 11월 1일 피놉스코트에서 개최된 피오테의식에 직접 참석하고 그 경험담을 보스턴에서 발행되는 뉴잉글랜드 한인회보(www.bostonks.com)에 기고하였다. 피오테 의식에 대한 설명은 그 기고문 중 해당 부분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세상일은 생각날 때 해 버려야지 미루다 보면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시 찾기로 약속한 지도 몇 주일이 지났으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큰 맘 먹고 집을 나섰다. 보스턴의 사우스 스테이션 버스터미널에 가면 메인 주의 뱅고어(Bangor)로 가는 정기 노선버스가 있다. 10시 버스를 타니 네 시간 반 걸려서 뱅고어에 오후 2시 반에 도착했다. 버스터미널에 탭고 선생인 남지택이 아기를 차에 태우고 마중 나와 있었다. 처음 만나는 사이이지만 이미 사진으로 얼굴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까닭에 낯설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뱅고어에서 피놉스코트 네이션(Penobscot

Nation)이 있는 울드타운의 인디언 아일랜드 인디언 보호구역까지는 자동차로 대략 20분이 걸렸다. 먼저 남지택의 집으로 갔다. 집으로 가는 길 이름이 매우 복잡하다. Burnurwurbskek Lane이다. 사연을 물어 보니 원래 자기 부족의 이름이 이런 것이었는데 유럽에서 건너온 정착민들이 부르기 쉽게 피놉스코트로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집에서 그 날 밤에 쓸 물품들을 챙겨 차에 싣고는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바로 이동하였다. 피놉스코트강 옆으로 난 길을 따라 북쪽으로 20분 정도 올라가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수필집 '월든(Walden)'의 저자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쏘로(Henry David Thoreau)가 원시 숲 속 자연을 탐방하러 생전에 세 번이나 이 지역을 찾아 왔다고 한다. 행사장에는 남지택의 남편인 인디언 조각가와 몇 사람의 조력자들이 모여서 티피(tepee)를 설치하는 등 행사준비를 위하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행사가 열리는 넓은 공간은 보스턴에 있는 서퍽 대학교(Suffolk University)의 자연학습 시설이라고 한다.

인디언의 전통적인 종교행사가 있다고 해서 이 날을 택하기는 했어도, 행사의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진짜 티피도 처음 보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내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뉴욕의 알바니(Albany)에서 온 나바호족 인디언도 있었고 뉴햄프셔에 사는 백인 부부도 참석하였다. 이

밖에 오늘 행사 주인공의 친척과 친지들이 초청되었다. 그 사람들 눈에는 내가 호기심 대상이 됐을 법하다. 나는 그들에게 남지택과의 인연을 설명하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인디언들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서 멀리 한국에서 왔노라고 알려 주었다.

이 날 행사는 피놉스코트 네이션의 부족이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 피오테의식(Peyote Ceremony)이었다. 행사 참가자들은 저녁 식사를 간단히 끝내고 모두 티피 안으로 들어갔다. 티피 안 중앙에는 모닥불이 타고 있었고 반원형으로 나지막한 던덕을 만들어 놓았다. 나도 티피 한편에 자리를 잡고 다른 참석자들이 하는 것을 눈치껏 따라 했다. 먼저 모든 참석자들이 종이에 담배 가루를 말아서 불을 붙인다.



〈피오테 의식(Peyote Ceremony)이 열렸던 티피(Tepee)〉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57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斯多含(9)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어지는 화랑세기, [나이 12살에 문노를 따랐는데 격검에 능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했고, 아버지보다 큰 품포가 있었다. 낭도들이 서로 일러 말하기를 “구리지공의 음덕으로 받은 복이다” 했다. 사다함은 밖으로 굳세고 안으로 어질었고 우애에 독신했다. 비록 설성에게는 거역했으나, 어머니를 섬기는 효도는 지극했다. 금진 또한 이로써 가장 ...했다. 매번 4절절을 맞아?유탕?에 들어가 ... 을 하도록 ... 했다. 제帝는 사다함이 춤을 잘 추는 것을 알고 ... 금진은 짝하여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사랑(幸)을 받고 돌아왔다. ... 스스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사랑을 하지 않고 돌아와도 ... 을며 ... 금진이 묻기를 “...에게 사랑을...” 했다. 사다함이 말하기를 “어머니와 더불어 임금이 짝이 되었으니 아들이 어찌 영광이 아닙니까?” 했다.]

이 구절도 탈자가 많아서 정확한 해독이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다. 먼저 문노는 신라에서 무예와 검술이 신기에 이르렀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화랑이다. 문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8세 풍월주 문노' 편에

서 다룰 것이다. 그리고 효성이 아주 지극했던 사다함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다. 사다함의 아버지 구리지가 독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후 어머니 금진은 구리지의 용양신이었던 설성과 함께 살았다. 정확한 연유는 알수 없지만 사다함은 설성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금진은 진흥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주 왕이 베푸는 연회에 초대되어 가무를 즐기게 볼 수 있다. 위의 사절유탕은 아마도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사절유탕인 왕의 별장으로 보인다. 봄에는 동아택東野宅, 여름에는 곡랑택谷良宅, 가을에는 구지택仇知宅, 겨울에는 가이택加伊宅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당시 신라에 35채의 초호화 개인주택인 금입택金入宅 있었다며 하나하나 주택의 명칭까지 기록하고 있다(실제로 기록된 금입택의 수는 39채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다만 재매정택財買井宅에 대해서만 김유신의 종가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유신공조종庾信公祖宗). 이렇게 삼국유사는 39채의 금입택의 이름을 다 나열하고 있지만 재매정택을 제외하고는 이 호화주택의 주인이나 위치, 규모나 배치의 기록이 없다. 그런데 '화랑세기'에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금입택 중 한 채인 수망택水望宅이 유일하게 등

장한다. 17세 풍월주인 염장廉(586~648)이 살았던 초호화 주택이다. 염장은 지도태후知道太后와 천주天主의 아들이다. 지도는 제25대 진지왕의 왕비였다. 진지왕은 폐위되고나서 3년 후에 죽었다. 그리고 지도는 진흥왕의 아들인 천주와 정을 통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염장이었다. 천주의 어머니는 진흥왕의 후궁 월화궁주이다. 월화는 아버지가 가야의 이노왕이고 어머니는 신라의 양화궁주이다. 염장은 이름과는 반대로 재물의 욕심이 과하여 많은 사취를 했다. 대단한 재력가로 묘사되어 있다. 15세 풍월주인 김유신(595~673) 아래서 부제로 있다가 17세 풍월주를 6년 동안 역임했다. 그리고 김춘추에게 풍월주의 자리를 물려주었다. 16세 풍월주인 보종공의 집안 일을 돌보으면서 재물을 끌어 모았다고 한다. 그의 재산이 화랑세기에는 “당시 사람들이 공의 집을 가리켜 수망택水望宅이라 했는데 금금이 들어가는 모습이 홍수와 같다고 해서 이른 말이다” 라고 묘사되어 있다.

39채의 초호화 금입택 가운데 현재까지 주인이 밝혀진 주택은 2채이다. 김유신의 종가와 염장의 사저이다. 나머지는 주택의 명칭으로 위치를 조금 알 수 있다. 또한 보리공(김대문의

증조할아버지)의 집과 김흠순(김유신의 친동생)의 집이 금입택이었던지는 몰라도 화랑세기에는 그들의 집 구조를 조금 설명하고 있다. 먼저 그 이름이 나타내는 금입택의 위치를 본다(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 김태식, 김영사, 제1장 참고).

먼저 신라의 호화주택에서는 우물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 김유신의 종가 이름이 재매정택인 것은 재매정이란 우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상택井上宅은 우물 위쪽에 위치한 금입택일 것이고, 지택池宅은 연못을 갖춘 호화주택일 것이며, 지상택池上宅은 연못 위쪽에 자리한 저택일 것이다. 신라인들이 우물을 신앙처럼 받들었음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다. 건국 시조 박혁거세의 탄생지가 나정蘿井이라는 우물이고, 그의 비알영도 사랑리의 알영정關英井이라는 우물에서 용의 오른쪽 갈비대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가슴, 눈, 코, 안면윤곽, 지방성형, 피부클리닉 전문

S프로포즈 성형외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당신을 위한 프로포즈! 프로의 프로포즈는 나뿐입니다"



◀ 대표원장 김지욱

성형외과 전문의 및 보철 의사
미국 뉴욕주 의료진
성형외과 노벨미용센터 연구
미국 Manhattan Eye, Ear & Throat
Hospital에 입원. 코, 안면윤곽, 안수
보철, 가슴, 안면외과



◀ 원장 정현석

성형외과 전문의
안면윤곽, 안면외과 전문의
안면윤곽, 안면외과 전문의
안면윤곽, 안면외과 전문의



PROPOSE
눈성형 클리닉

안면윤곽, 안면외과

고국방문 성형 할인 이벤트!

선명한 눈매

매몰 : 110만원 → 88만원
질개 : 150만원 → 132만원



PROPOSE
고성형 클리닉

안면윤곽, 안면외과

오뚝한 콧날

콧대교정 : 363만원 → 308만원



PROPOSE
가슴성형 클리닉

안면윤곽, 안면외과

당당한 가슴

매몰 : 660만원 → 605만원
매몰+보형물 : 770만원 → 660만원
후수 : 880만원 → 770만원



눈, 코, 동안, 지방, 가슴, 안면윤곽, 안티에이징 전문

케이뷰라인 성형외과

"케이뷰라인 성형외과는 초과치료를 위한 다름을 위해 시술명령을 지킨 수술, 수술 후 관리까지
1:1 개인별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표원장 구본상

성형외과 전문의
안면윤곽, 안면외과 전문의
안면윤곽, 안면외과 전문의
안면윤곽, 안면외과 전문의

고국방문
성형 할인
이벤트!

눈썹거상
167만원 → 154만원

상안검
107만원 → 154만원

하안검+지방제거
190만원 → 154만원

실리프팅
365만원 → 264만원

안면거상
660만원 → 550만원

안면거상+목거상
880만원 → 660만원



부가세 관련 정보

2016년 4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외국인이 성형, 비유외 목적으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실현할 경우 개인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여 납부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키키오독 : 010.3469.4040 / ID: hureamkorea
huream@huream.kr / www.hure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마음의 선물"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XXII -

여기저기 세상을 환하게 꾸며주는 크리스마스 장식 라이트는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으로 추운 겨울을 따스하게 녹여주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크리스마스 장식 라이트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준다. 크리스마스 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 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산타 할아버지이다. 산타 할아버지는 12월이 오면 최고의 인기를 얻는다. 산타 할아버지의 스토리에는 마법의 환상이 있다. 어릴 적 크리스마스 날에 기쁜 행복을 느꼈던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의 환상을 깨트리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선물 준비에 들어간다.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어린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명약으로 쓰기도 한다. 그 예로,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타운에 오신다는 노래가 있다.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He's making a list, And checking it twice, Gonna find out who's naughty or nice.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He sees you when you're sleeping, He knows when you're awake. He knows when you've been bad or good, So be good for goodness sake! 조심하는게 좋아. 울면 안돼. 짜증도 내지마. 왜그런지 내가 알려줄게. 산타 할아버지는 지금 선물리스트를 두번씩 체크하며 리스트를 만들고 있어.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타운에 곧 다녀 가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나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그러니 조심하는게 좋아.

이 전설 속의 산타 할아버지 스토리는 사실 이렇게 시작되었다. 7세기, 터키 지역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우스는 남몰래 많은 선행을 했는데 그가 죽은 후 그의 이야기는 노르만족들이 유럽으로 전해졌다. 12세기 초 프랑스의 수

녀들이 니콜라우스의 축일 (12월 6일)의 하루 전날인 12월 5일에 과거 성 니콜라우스의 선행을 기념해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고, 그 풍습이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17세기쯤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성 니콜라우스라는 이름 대신 산테 클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발음이 그대로 영어가 되었고, 19세기경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오늘날의 산타클로스로 불리게 되었다. 산타 할아버지의 옷, 붉은 색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유래되었다. 1931년, 미국의 음료 회사 코카콜라가 겨울철 콜라 제품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이를 막기 위해 홍보 전략으로 코카콜라의 상징적인 색, 붉은 색을 산타클로스에게 입히면서 홍보에 나선 것이다. 가톨릭에서 추기경은 붉은 색 옷을 입는 데서 성 니콜라우스 성인은 추기경이었고, 이러한 연유에서 산타 할아버지의 옷이 붉은 색으로 표현된 것이다. 코카콜라의 이 기막힌 마케팅 전략은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올리는데 성공했다.

가난한 가족에게 베푼 선행은 순수한 사랑을 전하는 '마음의 선물' 이 우선 이었다. 다시 말해, 돈을 사용해서 산 선물이지만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일의 수단으로 사용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산타 할아버지는 순수한 사랑을 전달하며 마음의 선물을 주기보다 순수한 어린아이의 구매 충동을 불러 일으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쇼핑 몰 어디든지, 산타 할아버지와 사진을 찍는 부스가 마련 되어있다. 환상 속에 있던 산타 할아버지를 쇼핑 몰에서 만나며 벅찬 감격에 빠지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러니가 느껴진다. 후에 이 벅찬 감격이 돈으로 구매한 것을 알게되면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 구매 현상이 학교에서마저 일어나고 있다. 가난한 영세민인 한 어머니는 학교에서 보낸 전단을 보며 슬퍼한다. 전단의 내용은 이러했다. 산타 할

아버지가 학교를 방문하는데 사진을 찍고 싶으면 티켓을 사야한다는 것이었다. 어린아이가 자랑 자랑 넋이나 있는 어머니는 산타 할아버지와 사진을 찍으려면 돈을 내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다른 아이들 모두 찍을 때 쭈뼛쭈뼛 기가 죽어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학교마저 아이들에게 '배금주의' 를 부추기니, 하늘에 계신 산타 할아버지의 원조이신 성 니콜라스가 통곡을 하지는 않을까 싶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모든 관계를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며, 삶의 최상의 가치를 돈이라고 믿는 배금주의(拜金主義: Mammonism)에 빠져있는 현 사회는 선물이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닌 선물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인냥, 구매 충동을 부추긴다. 돈이라는 물질의 위상과 힘이 막강해지면서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보다 돈을 더 잘버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돈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돈' 이라는 대상이 신성한 물건이 되고 초월적이고 신비한 지위를 얻기까지 한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랑을 획득하고, 존경을 얻고, 힘을 갖는다. 설마, 돈으로 사는 사랑을 하고 있구나?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항의 해도 좋다. 사랑하는 대상을 찾을 때,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애인이나 배우자 감을 찾을 때, 어떻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졌는지 솔직히 들여다 보자. 외모, 학력, 집안 배경이 자신의 조건과 맞지 않아도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 사랑에 빠졌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돈이 많으면 성형으로 예뻐질 수 있고, 비싼 과외로 좋은 대학도 간다. 이렇게 돈 들여 멋있는 대상이 되면 자신을 흠모하는 대상이 많아진다. 자연히,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황홀하게 빠지는 사

랑은 영원하지 않다. 공작지는 반드시 벗겨지고 말기 때문이다. 그토록 가슴 벅차던 사랑이 쉽게 끝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사랑하기는 쉽지만 사랑할 또는 사랑 받을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자기 방어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내면의 인격보다는 외모나 학력, 집안, 높은 수입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고 사랑을 집이나 차를 사듯, 자신의 교환 가능성 범위에 있는 인간 상품을 찾아 상호간의 '최고의 유리한 거래' 를 나눌 대상을 찾아야만 사랑에 빠진다. 이는 돈으로 사랑을 사고 팔고하고 있다는 원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 돈의 힘과 매력으로 치장한 자기 과시로 인간의 애정 관계가 상품을 사고 팔듯 이루어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면 돈이 사랑이고 애정의 표현이라는 배금주의의 사이클은 계속 되고 말 것이다. 돈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마력을 휘두른다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의 관계는 더욱 더 망가져 갈 것이다.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덕이 되기도 하도 독이 되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진가는 그것을 지닐 때보다 사용할 때 제대로 발휘된다고 말했다. 선물을 마련하기 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이가 원한다고 무턱대고 구매 하기 전, 부모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 무엇일 지 생각해보자. 필자의 칼럼에 마지막을 이해인 수녀의 '마음의 선물' 로 대신한다.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칭찬과 격려,
따스한 웃음 다른 이의 약점을 감싸주는 사랑과
인내,
이웃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이해와 관용,
힘없고 아픈 이들에 대한 참된 배려와 정성,
한겨울 추위 속에 제 맛이 드는 김치처럼 우리
의 사랑도 제 맛이 들게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
야 해요.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무료 견적서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베인투스 완비

126 Main St North Reading

한국 오토바디샵

11월 14일

GRAND OPEN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경백-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제 사업(대량용 남부 사업소 판공 도장부 근무)
- Herb chamber 브레인트리 콜라본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Bernad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k, Toyota)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Calvin's auto body 운영
- 20년 Auto body work!

126 Main St. Unit 10, North Reading MA 01864 | Tel: 978.664.2321, Fax: 978.664.2314

E-mail: autobody.hk@gmail.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59)

뮤추얼 펀드를 떠나는 이유

모든 뮤추얼 펀드 광고나 안내 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Past performance does not guarantee future results." 한국말로로는 "과거의 수익률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는 이것을 가볍게 무시해 버립니다.

이 문구는 실제로는 "수익률이 높았던 펀드 대부분은 미래에는 수익률이 형편없게 된다. (Strong performance almost certainly guarantees worse performance in the future)" 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유망하다고 전망하는 회사 주식에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선별가(Stock Analyst)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 결정을 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회사 규모에 의해서 이미 선정되어 있으므로 펀드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S&P 500은 미국 500대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은 1년 두 번 발표(S&P Dow Jones Indices)가 됩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한때 높았던 뮤추얼 펀드 수익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통계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모든 뮤추얼 펀드 수익률을 발표했습니다. 수익률이 높았던 탑 25%(Top Quartile)에 속했던 뮤추얼 펀드가 2년 후에도 탑 25%에 남아있는 뮤추얼 펀드는 단 7.33%라고 합니다. 이 말은 2년 전에 모든 뮤추얼 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펀드가 100개라고 가정하면 2년 후 같은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단 7개의 뮤추얼 펀드라는 뜻입니다.

*큰 회사(Large Cap)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가 수익률 탑 50% 안에 5년 동안 남아 있을 확률은 겨우 3.7%이면 중간 회사(Mid Cap)는 5.79% 그리고 작은 회사(Small Cap)는 7.82%입니다.

올해(2016)도 8월까지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성적이 좋은 뮤추얼 펀드는 단 14%입니다. (Janus Deal Lifts Hopes for Copycats,

WSJ, October 4, 2016) 만약 여러분의 돈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었다면 무려 86%가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재정설계사가 고객의 자산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면 제대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고 20여 년 전부터 설명했습니다. 모든 뮤추얼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1년, 5년, 10년의 통계를 볼 때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뮤추얼 펀드는 15~20%뿐이라는 사실입니다. (Investing in Stocks Against the Indexing Goliath, WSJ, April 3, 2015)

재정설계사에게 "나의 소중한 돈을 수익률이 나쁠 확률은 80% 이상이고 경비도 많은 뮤추얼 펀드에 왜 투자하냐고?" 질문해야 합니다. 변명이 공색한 재정설계사가 '자기는 수익률이 높을 뮤추얼 펀드를 선정해서 투자한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투자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뮤추얼 펀드 매니저도 인덱스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삼자인 재정설계사

가 어떤 뮤추얼 펀드가 앞으로 탑 20%에 속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두 번 우연히 맞게 선정했다고 해도 그 뮤추얼 펀드가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2015년 투자자가 뮤추얼 펀드에서 \$310 Billion을 꺼내어 인덱스 펀드에 \$409 Billion을 투자했다고 월스트리트 신문(Are Index Funds Eating the World?, WSJ, 2016년 8월 26일)이 말합니다. 10년 전 인덱스 펀드 투자는 투자 전체 중 20%였습니다. 2016년 7월 기준으론 42%로 상승했다고 모닝스타가 발표했습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인덱스 펀드를 추천했습니다. '여러분이나 투자를 도와주고 있는 재정설계사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화를 싫어하기에 무엇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중한 돈을 남에게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에게 혹은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차대전 참전: 고립주의 외교의 공식적 종말

1941년 12월 7일 아침 7시 55분 하와이의 진주만 해군기지가 일본군의 기습 폭격을 당했다. 예측하지 못했던 공습이었기 미국 측의 피해는 엄청났다. 전함 다섯 척을 비롯한 각종 선박들이 침몰하거나 파손되었고, 200기가 넘는 전투기가 파괴되었다. 인명피해도 컸는데 2,400명의 미국인이 사망했고 1,200명은 부상을 당했다. 일본측은 30여대의 비행기와 다섯 대의 소형 잠수함이 파손되었고, 100명 이하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니 미국이, 미국 본토에서, 일본의 기습공격에 거의 일방적으로 참담하게 당했던 셈이다.

바로 다음 날인 12월 8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에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요청하였고 의회는 즉각 이에 화답한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 "진주만을 기억하라," 그 한 마디로 미국의 참전은 정당화되었다. 곧이어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미국은 소련, 중국, 영국, 캐나다 등과 함께 반파시즘 연합을 구축했다.

애초에 다소 무모하게 진주만 공격을 감행한 일본의 본래 의도가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었겠지만, 이로써 미국은 세계 제 2차 대전의 주요 참전국이 되었다. 어쨌거나 좀 미국의 2차대전 참전은 여러모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전쟁은 침체기의 미국 경제를 호황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미국의 참전 결정은 지금까지 미국이 고수해왔던 "고립주의 외교 노선" 이 (그후로도 오랫동안) 폐기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건국기부터 2차 대전 무렵까지, 대체로 경제적으로는 교류하되 정치, 외교적으로는 간섭하지 않는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고수해왔다. (과거형이다) 그 시작은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1793년 중립주의 선언 (Neutrality Proclamation)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전쟁으로 이어지고,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상태에 돌입했던 때, 독립 전쟁을 미국의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778년의 프랑스-미국 연합 (Franco-American Alliance)의 정신과 의리를 생각한다면 미국은 당연히 프랑스의 편을 들어야 했겠으나 그러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새로 수립된 정부는 그때 우리를 도왔던 "그" 프랑스 정부가 아니야!

실제로는 실리적인 이유였다. 첫째, 프랑스에 동조적인 입장을 취했던 민주공화파와는 달리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연방파 (Federalists)들은 프랑스의 편에 서는 데에 반대했다. 그들을 지탱하는 북동부 상인들에게 영국은 주 교역대상이었기에, 프랑스와의 동맹 유지만 영국과의 친분을 깨고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 영국이든 프랑스든 영원한 아군 혹은 적군을 만든다는 것은 신생국이었던 미국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선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립주의 외교 노선의 입장은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에서 한 번 더 강조된다.

그 후로 30년이 흐른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이른바 "고립주의, 불간섭주의"로 정리되는 먼로 독트린을 통해, 고립주의 외교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신대륙과 구대륙은 서로 다르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간의 갈등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유럽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도 미국 대륙에 대해 간섭하지 말 것. 또한 미국은 앞으로 유럽이 신대륙에 더 이상의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배격할 것이다."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은 19세기 내내 미국의 공식적인 외교적 입장이었다. (다만,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은 반식민지주의라기 보다는 유럽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옳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미국의 국력이 팽창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은 서서히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띄게 된다. 이미 유럽 열강들이 전세계를 무대로 힘을 겨루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만 가만히 있다면 "경쟁에서 도태해버릴 것"이라는 사회 다윈주의적인 시각도 등장했다. 하지만 1차 대전 종전 후 미국의 주도적인 여론은 다시 외교 문제에 있어 고립주의로 선회했다. "우리는 그 전쟁에 참전하지 말아야 했다" 는 주도적 정서가 대두했던 탓이다. 특히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은 고립주의 정서를 더욱 강화시켰다.

1930년대 중반,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나치즘과 파시즘이 등장하고 유럽의 정세가 불안정 할 때 미국은 교전중인 국가로의 여행 금

지, 금전 대여 금지, 무기 판매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중립법 (Neutrality Acts)를 내놓음으로써 고립주의 외교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 결과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지원했던 파시스트 프랑코파의 쿠데타가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던 1937년 스페인의 내전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는 히틀러로 하여금 미국은 유럽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힌트로 작용했다.

1939년 9월 독일이 체코와 그리고 폴란드를 침공했다. 2차 대전의 시작이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기존의 중립법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하여 1939년 수정된 새로운 중립법은 군수품을 수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하지만 "Cash & Carry" 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배달과 외상거래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제거 했다. 루즈벨트의 은유적 연설처럼 이제 미국은 "민주주의의 무기고 (the Arsenal of Democracy)의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으로서는 실익도 있었다. 군비 수출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었고, 긴 불황은 끝이 나고 있었던 탓이다. 1940년 루즈벨트가 4선에 성공하자 루즈벨트는 더욱 적극적으로 연합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얼마 후 발생한 진주만 침공과 미국의 참전은 미국이 자연스럽게 중립주의,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폐기할 수 있는 계기였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패권국가 미국의 한 출발점이다.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i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법

최근 거의 매일 트럼프 당선자로 인해 지금 계류중인 비자나 이민 신청서가 잘못되지 않는지, 앞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있는지 등 트럼프 당선자의 반이민정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로부터 질문들을 수도 없이 받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일은 없을겁니다. 적어도 합법적인 경로로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시거나 신청하고 계신분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겁니다. 설사 멕시코와의 국경에 벽을 설치한다고 계류 중인 신청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의문이고 추방을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이는 범법자의 추방을 늘리는 것이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외국인이란 이유로 추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민법 테두리 안에서는 합법적인 경로로 비자나 영주권 취득 및 신청을 하고 계신분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4년은 (이민법으로만 봤을 때) 지난 8년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난 8년간 포괄적 이민개혁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선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희망을 가졌습니까? 하지만, 포괄적 이민개혁 중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 8년간 이민관련 신청료의 인상은 한번도 아니

고 두번이나 있게 됩니다 (오는 12월23일 인상 포함).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한 행정부에서 이민 신청료가 두번이나 인상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미국 이민 역사상 가장 많은 추방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나쁠 수는 없을 겁니다.

시작부터 재임을 포기하는 대통령은 없을 겁니다. 이미 당선됐고 재선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 새 대통령도 무리하게 이민법에 손을 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분적 이민 개정

내년 1월17일부터 몇가지 이민개정이 실행됩니다. 법개정이 아닌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 취소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기존의 법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해석들이고 아래 몇가지를 빼고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아래는 몇가지 주요 개정 사항들입니다.

- 취업이민 1, 2, 3 순위 신청자들의 우선순위 날짜의 재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즉, 취업 1, 2, 3 순위로 신청했던 신청자들이 기각됐더라도 (위법행위 때문에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신청 시 처음 받았던 우선순위 날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H 와 O 비자의 직계 가족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H 또는 O 주 신청자가 취업이민 신청을 하고 아직 우선순위 날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의 직계가족들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Grace Period: E, H, L 비자에 한해 시작된 10일의 grace period 가 주어지며, E, H, L, O 비자에 대해 만료 후 최대 60일의 grace period 가 주어집니다.

이 외에는 기존의 법들과 그리 다르지 않거나

나 혜택의 폭이 크지 않아보입니다.

새 이민 신청료

오는 12월 23일 부터 모든 이민관련 신청서에 신청료에 대한 인상이 시행됩니다. 12월23일 인지가 찍힌 신청서에 대해서만 기존의 신청료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많이 신청하시는 신청서들과 새 인상료입니다. 다행히 지문료는 인상없이 기존의 \$85 로 유지됩니다.

종류	기존신청료	새신청료	지문료	합계
N-400 시민권	\$595	\$640	\$85	\$725
I-130 가족영주권	\$420	\$535	None	\$535
I-140 취업영주권	\$580	\$700	None	\$700
I-360 종교/특별 영주권	\$405	\$435	None	\$435
I-485 영주권	\$985	\$1,140	\$85	\$1,225
I-90 영주권 재발급	\$365	\$455	\$85	\$540
I-129 E,H,L,O,P,R 등 비자신청	\$340	\$535	None	\$535
I-751 임시영주권 갱신	\$505	\$595	\$85	\$680
I-765 노동허가서	\$380	\$410	\$85	\$495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 내용입니다.

신용 교정이란

지난번에는 FICO 점수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주택구입이나 차량 구입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혹 인터넷에 떠도는 얘이기도 하지만, 크레딧을 기준으로 대출생활을 하는 미국인들의 생활양식을 함께 곁들여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것입니다.

사업자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오브 크레딧 (line of credit) 같은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도, 평소 자신의 높은 크레딧 스코어만 기억하고 있다가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개월 전 부터는 자신의 재무상태를 잘 관리해서 최상의 조건으로 정리한다는 대출이나 신용한도를 신청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번주에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크레딧 교정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크레딧 교정 서비스는 연방규제인 Fair Credit Reporting Act에 의해 이뤄지게 됩니다. 일정 자격을 승인받은 사설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광고하여 본업으로 하기도 하고, 소비자 보호법을 다루는 로펌에서도 변호사 책임하에 이뤄지기도 합니다. 아래 인용되는 문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크레딧 교정 서비스 회사들 중에서 광고내용을 옮겨왔습니다. 내용이 비교적 정확한 관계로 우리 교민들께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은데,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은 한 회사의 광고문구를 인용했습니다.

CREDIT RESTORATION SERVICE(크레딧 교정 서비스)

미국 신용 보고서의 약 80%가 부정확 한 내용이나 잘못된 계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크고 작은 많은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잘못된 신용 기록을 교정해주는 서비스를 하고있으며, 저희 회사에서는 그중 가장 믿을만한 회사를 통하여 크레딧 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작은 비용으로 (\$1,000) 크레딧 교정을 해드리며 만족할만한 결과가 없는 경우 전액을 REFUND 해드리는 것이 회사의 약속입니다. 크레딧 교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하기

교정하실 분의 SS Number 와 주소,수수료 (\$500 수표, \$500 크레딧 카드결제)를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당신은 이메일을 통하여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받게됩니다.

해당 서류가 제출 된 후 3-5 일 이내에 분쟁 편지(DISPUTE LETTER)의 첫 번째 세트를 받게 됩니다.

검토하기

분쟁 편지가 도착하면 (검토하여 잘못된 내용이 있을경우) 저희 회사에 알려주세요. (고객 서비스 부서에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

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질문에 답하고 요청에 따라 분쟁서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되면, 새로운 분쟁편지가 전송됩니다.

업데이트 된 분쟁편지를 받아 서명하여 보내주시면 우리가 검토하여 제출합니다.

결과 수신 :

30 일 이내에 모든 3 대 신용 평가 기관에서 응답을 받게됩니다. 그들이 응답하든 않든 우리회사에 알려주셔야합니다.

30일 안에 평가기관에서 응답을 안하면 합법적으로 나쁜 기록을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쁜기록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당신에게 새로운 분쟁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다섯 차례동안 위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위의 내용 이외의 다른 기법은 회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분쟁 조정 건당 정액제로 처리하는 로펌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많은 소비자들이 서비스 업체를 선택하고나서 비로소 알게되는 내용이, 비록 자신은 1건의 부정확한 기록을 의뢰했지만, 이 건만이 3대 신용 평가기관에 각각 처리되어야 하므로, 최대 3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분쟁비용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율 및 신용한도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대가는 총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면, 서비스를 의뢰할 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트랜스 유니언 (TransUnion), 익스페리언 (Experian) 은 신용조회 요청기준이 에퀴팩스 (Equifax) 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에퀴팩스 기록도 함께 포함되는지 짚어보셔야 합니다. 에퀴팩스는 크레딧 리포트를 요청하는 기관에 현장방문하여 실사하여야만 발급요청을 받아 주며, 처리과정도 좀 까다롭습니다. 시작할 때는,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이름, 소셜번호, 서명, 날짜 그리고 사진있는 신분증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나면,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 리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체되고 있는 기록들이 불필요한 감점의 요인이 되며, 분쟁/정정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를 정정요청하는 Dispute Letter를 접수합니다. 30일 이내 처리를 해야 하고, 이런 부정확한 기록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한가지 더. 나쁜기록이라고 인용부분에서는 쓰여져 있지만, 나쁜 기록이라도 정확한 기록이면 없앨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있는 기록은 부정확한 기록입니다.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강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 분사 소속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기업 고객

- 국제법
- 근용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업 및 M&A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성법
-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다국,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T | 617.489.1327 MA@SONGLAWFIRM.COM

MA OFFICE |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songlawfirm1
- songlawfirm LLC
- songlawfir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톤, 런드로맷(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킹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1.2M 히바치+스시, 플리커 면허증
좋은 매매가격 \$3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플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아침/점심 보스톤쪽 주6일 영업 연매상 \$300,000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단독건물, 셀러은퇴(건물주)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뉴햄프셔 동양식당 + 플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1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좋은 렌트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SAT/SAT I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랜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2016 Thanksgiving 프로그램 (마감일:11월 11일)

- 기간: 11월 11일(토요일) - 27일(일요일)
- SSAT/SAT I Class: 12월 1월 시험 대비 집중 프로그램, 유능 강사진, 실전 문제 풀이 중심 및 꼼꼼한 감독,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 배분
- SAT II Subject Class: Math IIC, Physical, Chemistry
- AP 및 경시대회 준비 개인 수업



	SSAT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AT For High School Students
8:00-8:30	단어 test	단어 test
8:30-12:30	Class(reading/verbal)	SAT Reading Class
12:30-1:3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3:30	Writing Workshop	BAT Writing & Language Class
4:00-6:00	TOEFL Class	BAT 2 Subject Class
6:00-7:00	저녁식사	저녁식사
7:00-8:00	Private tutoring/study hall	Private tutoring/study hall
9:00-10:00	귀가	귀가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